朝鮮日報
夕刊 五日(水)
本紙朝夕刊十二頁

獨逸海軍將校가 叛亂軍總帥訪問

佛國側不干涉提議의此際 英外交界에大衝動

【倫敦四日發同盟】獨逸海軍將校가 西班牙叛軍總司令官 프랑코將軍을 訪問하고 敬意를 表明하얏다는 報道는 倫敦外交界를 刺激하야 이것으로해서 佛國政府의 內政不干涉提議를 合理化하게되엿다고보고잇다 但 英國政府는 못까지 愼重을 期하고 確報가 入手하기까지는 何等의 言質도 與하지안는다는 態度를 가지고잇다 但以上의 報道에依하야 英國政府는 佛國政府의不干涉提議에好意를가지게된것은事實인모양이다 (寫眞 프랑코將軍)

內亂不干涉 獨佛意見一致

【伯林四日發同盟】伯林駐剳佛國大使퐁세氏는 四日午前 獨逸外務省에 노이라트外相을 訪問하고 西班牙內亂에 對한 不干涉政策에關하야 會談을 遂하엿다 席上에서 퐁세大使는 佛國政府는 英伊兩國政府에對하야不干涉協約案을提示하엿다는 旨를說明하고 獨逸政府의協力을 要請하엿는데 外相노이라트男은 原則的으로 右協約案에 異議업다는 旨를述하고 但 協約案의 實效를 期하기爲하야 蘇聯政府의 參加가絶對必要하다는旨를 明言하얏다

프랑코將軍訪問은 好意表示의象徵

叛亂軍某有力者談

【테쥬안四日發同盟】獨逸海軍主力艦도이취란드號外一隻은三日午前 세우타港에 投錨하야 艦長以下 乘組將校는 即時 上陸하야 叛軍의 總司令프랑코將軍을 訪問하고 時餘에 亘하야 會見을 遂하엿다 會見은 單純한儀禮的訪問에 不過하다고말하나 叛軍某有力者는 獨逸海軍將校의訪問으로써 明白히 叛軍에 對한 好意의 表明이라고 看做하고 四日 如左히 言明하엿다 獨逸軍艦의 세우타入港은 數日前부터 우리의 待望不已한 바이다 도이취란드號의 艦長以下 獨逸海軍將校가 프랑코總司令을 訪問하고 一時間餘에 亘하야 懇談을 遂한것은 明白히 叛軍에 對한 好意의 象徵이라고 解釋된다

英軍艦避難民收容

【지브랄타르四日發同盟】英國巡洋艦데원샤號는 四日午後 마드리드駐剳베네쥬라公使 오초라氏 諸威公使 베-크氏以下 四百六十八名의 避難民을 收容하고 四日午後지브랄타르港을 出發하야 말타島를 經由하야 歸英하기로 되엇다 主力艦퀸·엘라자베드號는 四日午後 지브랄타르港을 나와 바르셀로나 아리칸데 발렌샤에 寄港하야 各港의 避難民을 收容한際 歸國할려이다

大戰前夜의不安!

西國叛亂重大化

佛은英佛伊三國共同宣言主張 尋常치안흔獨逸行動

【巴里四日發同盟】獨逸海軍의精銳 도이취란드號가 西班牙叛亂軍의本據 세우타港에 進出하야叛軍과 자조 交驩하고잇다는 報道에 [illegible] 政府는 [illegible] 大戰前夜의 不安에 戰慄하고잇는데 四日夜 不干涉協約案에 關하야 英國政府의 回答을 接受한後 如左히 言明하엿다

一、伊太利軍用機가 西班牙叛軍의 本據에 들어간以來 關係各國間에 政府軍乃至 叛亂軍에對한 武器供給競爭이 始作되여잇다 特히 獨逸海軍將兵이 公然 叛亂軍과 交驩하게 되어서는 國際情勢는 急激히 惡化하지 안흐리라고 할수업다 佛國政府가 此際에 國際紛爭의 重大破局을 阻止함에는 關係各國政府가 嚴正中立을 標榜하고 內政不干涉協約을 締結하는 以外에 方法이 업다고 確信한다 英國政府도 大體 同意見으로 迅速히 紛爭處理를 期待하고잇는것은 滿足하야 마지안는다

一、勿論 英國政府는 佛伊兩國間의 協約에 끄치지안코 獨葡兩國政府를 加한 協約案을締結하고십다는 意向이나 伊太利政府가 滿足한 回答만 해주면 爲先 英佛伊三國間의 共同宣言을 내는것은 異議가 업는모양이다

一、一九一一年七月一日 그때의 皇帝 윌헬름二世가 佛國政府와 모록코統治權을 도로워 아카지-르에 巡洋艦판트웨르號를 派遣하야 示威行動을하엿는데 今回 獨逸海軍의 行動은 第二아카지-르事件을 意味한다

一、勿論 獨逸海軍派遣의 目的은 自國避難民의 本國歸還에 잇다고할는지모르나 叛亂軍은 아직 外國政府로부터 承認밧지아니한今日 獨逸海軍이一叛軍總司令프랑코將軍을 訪問한 것은 奇異의 感이 업을수업다

一、獨逸海軍今回의 行動은 西班牙內政에 直接干涉하게되지는 안혓스나 叛軍에 對하야 獨逸政府가 公然히 共鳴한證左라고 看做하고 兩者의 密接한 關係를 立證하는것이다

一、政府軍은 不法하게도 無防禦都市에 對하야 爆擊을 加한結果 마에르카州의 팔마사라데사市、아라곤州의 웨스카市는 灰燼에 歸하엿다

一、政府軍이 使用하고잇는 軍用機와 投下爆彈은 從來 西班牙軍에서 使用치 안튼것은 此等은 外國政府로부터 供給바든것이 明白하다

伊不干涉拒否時 佛도西政府援助

【巴里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西班牙內亂의 擴大를重大視하고英伊兩國政府에對하야 對西班牙內政不干涉協約案의 交涉을 開始하는同時에 西班牙國境附近의 페르스市로向하야 精銳한 追擊機 六臺를急派하얏다 右追擊機는當初드와니아政府의 要求에 基하야 佛國이讓渡한것인데 그後드와니아政府가 여러가지事情으로 引受할수가업서서 그냥 둔것인데 萬若 伊太利政府가 不干涉協約案에 參加치안는境遇에는 佛國은이 追擊機를 西班牙政府에 貸與하고 政府支持의 態度를 闡明할것으로보인다

지브랄타르附近서 政叛兩軍의空中戰

【탄지에르四日發同盟】지브랄타르附近에서四日午前政府軍及叛軍飛行機十數臺가 서로격거서 猛烈한 激戰을 展開하야 雙方이 모다 多大한 損害를 蒙하얏다고 傳한다 激戰後 叛軍水上機二台는 不時着 他의 二機는 수-타에 歸還한 模樣이다

蘇葡兩國에도 佛、不干涉을要請

【巴里四日發同盟】佛國政府는四日夜 英國政府의 回答을 接受하자 곳莫斯科駐剳大使 알판氏와 리스본駐剳大使 루로아氏에게 訓電을 發하야 蘇葡政府에게 交涉한後 西班牙內政不干涉問題에 支持를 要請하도록 指令하엿다

蘇聯邦各地에서 西政府支持示威

【莫斯科四日發同盟】蘇聯勞働組合聯合會에서는 四日 莫斯科其他의 各地에서 西班牙戰線內閣支持의 大示威를 敢行하엿다 特히 莫斯科에서는 蘇聯勞働組合同盟秘書長 시니벨코크氏는 『赤廣場』에 集合한 勞働大衆을 압두고 世界勞働者는 起立하야 組織的으로 西班牙의 同志를 支持하라고 絶叫하엿다 또勞士는 차례로서 西班牙勞働者支持의 메세이지를 朗讀하고 精神的支持와 物質的支持를 聲言하엿다

英外務當局 不干涉協約締結援用

【倫敦四日發同盟】倫敦駐剳佛國大使館參事官카무루-봉氏는 四日夕刻 英國外務省을 訪問하고 如左히 述하엿다 西班牙叛軍總司令 프랑코將軍은 무-어人을 武裝시켜서 叛亂抗爭에 使用하고잇는데 그結果 모록코土民의 反抗心을 刺戟하야 叛亂을 誘發하는지도 모른다 特히 佛國政府로서는 叛亂軍의 行動은 自國領모록코에 重大影響을 與하는것은 看過할수업다 프랑코將軍의行動은 一九二一年十月의 佛西條約의 違反이다 英國外務當局은 以上의 [illegible]

廣西實權保持코 平和解決을希望

二、三兩日南寧巨頭會議結果

李白兩氏四個條提示

【廣東四日發同盟】蔣介石氏로부터 何應欽 朱培德等을 通하야 한 最後的勸告에 對하야 李宗仁 白崇禧兩氏는 아직 表面으로 何等意思表示를 하지안코 廣西派의 意向이라고 傳하는바에 依하면 李、白兩氏는 廣西의 實權을 保持하고십다는意嚮을 가지고 二、三兩日에 亘한 南寧의 巨頭會議에 平和解決의 條件으로

一、李、白兩名을 依然 廣西綏靖公署正副主任으로 廣西省을 統轄할것

二、廣西軍의 編制은 李、白兩名自身이 處理할것

三、廣西軍은 對外作戰以外에移動치안흘것

四、中央은 軍費로 每月五十萬元을 補助할것

右四項目을 決定하야 이를中央에 提示하얏다 고한다 그리고李白兩氏로부터 蔣介石氏에게 香港에서 會見하고자하다고 要請하얏다는說도잇스나 右는事實無根으로 廣東에서의 直接會見도 拒絶되고잇는形勢이다 (寫眞은 李宗仁氏 白崇禧氏)

宇垣總督辭任으로 政界一大動搖?

政民兩黨에影響不少

【東京電話同盟】宇垣總督의 辭意는 이미三年來 [illegible] 되어온 問題인데 今回 [illegible]側의 [illegible]을 目標로한 一日의定期異動直後 그退官實現을 보게된것은 今後의 政治的影響 特히政友 民政兩黨에 對한 影響도不少하야 注目되고잇다 卽 政民兩黨이 모다 二、二六事件直後의 去特別議會에서는 부질업시 自肅自戒 힘써 政黨의 信用回復에 邁進하야 最近廣田內閣의 國策檢討問題에는 漸次政黨側의 發言도 무게를 더하야 政黨의 信用回復의 端緖가 차츰불만한 것이 잇스나 다만 政民兩派가 모다 複雜한 黨內事情이 禍因이 되어 即政友會는 久原系의 沒落、鈴木總裁의 更迭問題가잇고 民政黨도 또한 町田總裁의 聲望이 차츰 떠러저서 昔日과갓지안코 거다가 政黨 [illegible] 軍人의 心理作用에도 影響하야 國策檢討會等 所謂政黨의 推進運動이 發生하고잇스며 또 他方 庶政一新을 標榜하는 現內閣의 [illegible] 國防問題로 伴[illegible]는 [illegible] 狀態를 못하야 벌서 廣田內閣의 前途難을 想像케하는 이때이므로 多年政界의 [illegible] 宇垣朝鮮總督이 勇退한 것은 此等政局에 어떠한 影響을 與하지안흘수 업스리라는것은 想像키 不能하다 勿論 宇垣總督이 下野하야 지금 새삼스리 政黨加入을 敢行할 意圖가 잇다고는 信憑되지안흐나 宇垣派라고 稱하는 者中에 民政黨의 富田幸次郞 俵孫一 政友會의 砂田重政等 諸氏가 잇고 現內閣의 島田農相도 宇垣氏와 사이가조타고까지 傳하고잇스므로 宇垣總督의 去就如何로는 政民兩派에 一動搖는 不免할것이라고 그推移는 注目되고

民政黨近近 外交國策聲明發表

【東京電話同盟】民政黨은 外交國策、國防의 一新、革新[illegible] 見地로부터 從來의 [illegible] 交換을 거듭하고잇든바 四日午後의 [illegible]에서 [illegible] 櫻井、小川兩相外 各總務가 協議한結果 드듸어 外交國策에 關한 重大聲明을 近近 發表하기로 決定하엿다

西班牙政府代表 白國서武器購入

【브뤼셀四日發同盟】西班牙代表보라노氏는 軍需品購入의 任務를 帶하고 三日 브뤼셀에 到着하엿다 보라노代表는 第二인터事務局及 白耳義勞働黨의 斡旋을어더 各方面과 折衝하야 이미 手榴彈 機關銃 大量의 彈藥等에 關하야 契約을 了하얏다 繼續하야飛行機十二臺의 購入에 關하야交涉을 進行中이라고한다

叛軍側戰況發表

【부르고스四日發同盟】西班牙國防人民委員會는 四日 叛軍進展狀況에 關하야 如左히 發表하엿다

一、叛亂北軍은 政府軍의 頑强한 抵抗線을 突破하고 소모 서에라及 과다라마嶺의 戰線을 確保하얏다 프랑코將軍麾下의 南軍은 西班牙領모록코로부터 本土에 上陸하야 途中의 要衝을 陷落시키고 首都로 進擊中이다

一、사라고사方面으로부터 進擊中인 東軍은 아사히리에서 政府軍과 激戰하야 政府軍은 死傷者多數를내고 潰走하얏다 右戰鬪에서 叛軍은 敵의 裝甲自動車數臺를 鹵獲하얏다

一、西部戰線의 叛軍은 미에하라스、수리라에서 政府軍을擊破하고 兩地를 占據하엿는데 政府軍은 九十의 死體를 遺棄하고 潰走하엿다

以上의 事實에 鑑하야 西班牙政府는 叛然 抗戰을 斷念할것이다 (寫眞은 히틀러總統)

外地長官 全部更迭斷行乎

【東京電話同盟】政府는 四日 朝鮮總督의 更迭을 斷行하게되엇는데 이와同時에 八月中에 決定方針대로 外地長官更迭을 行하야 그人事刷新을 圖할 方針으로 準備를 進行中이다 即中川臺灣總督은 八月十四、五日頃 渡東하야 辭表를 提出하기로되어 그後任으로 小林海軍大將을 起用키로 內定하얏다 그리고 平塚總務長官도 總督과 進退를같이하리라 方針이며 그後任으로 貴族院議員大塚惟精氏起用說도 잇스나 아직 決定되지안혓다 다음 林南洋長官에 關해서는 永田拓相은 南洋拓殖株式會社常任監督役就任을條件으로 林長官의 辭退를 求하고잇슴으로 이도 도한近近實現될터이데 그後任은 拓務省關係者로부터 拔擢하기로되엇다 그리고 尙今樺太長官도 旭川市長就任의 交涉이잇스나 同氏는이를希望치안흐므로 暫時留任할것으로보인다

永井民政幹事長談

【東京電話同盟】宇垣總督이 辭任하고 南大將이 그後任이 된것은 여러가지 意味에서 重大한 意義를 가지고잇다 宇垣總督의 朝鮮의 五個年間統治는 文化的으로나 또 經濟的으로나 가장 活潑한 發達을 遂한 時代이엇다 이는 日本의 指導로 滿洲國의 大衆을 이룬 影響도 잇겟지만 同總督의 手腕經倫과 至大한 指導가 업섯드면 決코 如斯한 結果에 到達할수는 업섯슬것이다 朝鮮人으로서는 아마 同總督을 朝鮮으로부터 失한데에서의 悵을 未禁할것이며 南大將의 後任總督就任은

正式發令

總督、總監更迭

首相官邸에서官記傳達

【東京電話同盟】새로 朝鮮總督에 親任된南次郞大將과 政務總監에 親任된 大野綠一郞氏에게 對해서는 暑中이므로 親任式을 行하지안코 五日午後二時 首相官邸에서 廣田首相으로부터 各各 官記를 傳達하고 同時에如左히 發令하얏다

陸軍大將 正三位勳一等功四級 南次郞
任朝鮮總督

從四位勳三等 大野綠一郞
任朝鮮總督府政務總監

朝鮮總督 宇垣一成
朝鮮總督府政務總監今井田淸德
依願免本官 (各通)

人事·集會

◀持永淺治氏(朝鮮憲兵司令官)辭任人事次來社
◀兒島氏(咸北知事)十一日午後三時五十分京城驛發來社任

希臘、國會停止코 全國에戒嚴令發布

【아테네五日發同盟】希臘首相메타크사스將軍은 四日深更 國王게오르키오스二世의 同意를어더 國會를 停止하고 全國에戒嚴令을 布하야 獨裁制를 宣言하엿다

駐佛西大使館 義勇軍을募集

【巴里四日發同盟】西班牙大使館을 [illegible]存亡의 危機를 救하기 [illegible] 義勇兵을 募集하기 [illegible] 大使館에서 [illegible] 西班牙人民戰線義勇兵其他가 [illegible]

南洋廳部內臨時職員設置制改正

【東京電話同盟】拓務省에서는 南方國策遂行의 基礎的準備를 整備하고저 拓務局과 南洋廳에서 着着 이 具體化를 急行中인바 먼저 礎石이될 交通通信의 完備가 急務이므로 從來의 土地 調査事業等에 關한 調査事務以外에 新航空航路通信等에 關한 事務에 漸次的으로 進出하기로 決定하고 이에 伴하는 職員增加를 爲하야 今回 南洋廳部內臨時職員設置制를 改正하야 五日 公布하엿다 職員增加의 內容은 如左한데

一、土木營繕에 關한 事務、技手四人을 七人으로 增員
一、코브라檢查事務、技手一人을 三人으로增員
一、航空施設에 關한 事務、事務官一人(新設)屬二名(同)技手六人(二人增)
一、通信其他의 調査에 關한 事務(新設)事務官一人、屬一人
一、國有財產에 關한 事務(新設)屬一人
一、航路標識에 關한 事務(同上)技手一人
一、通信機關整備에 關한 事務(同上)技手一人

八面鋒

◇社會大衆黨中心으로 日本에도『人民戰線』을 形成하라는 運動.
◇이것도 한가지 流行으로본다하면 時代에 뒤떠러지지안차는 努力으로알가.
◇陸相의 公債論은 一種의 漫談이라고 藏相이·어물어물.
◇大藏大臣이 陸軍大臣職務로 [illegible] 係의 職責까지 [illegible] 운데 [illegible]
◇滿鐵幹部와 滿洲國政府의 衝突로 鴨綠江上에 大量漂死의 慘劇
◇法에 抵觸한者를 法으로다스림은 法治國의 當然한일 法잇고도 無法하게 他國民을 殺害한 [illegible] 이라할가.
◇溺死者二十三名을 當局은어띠케 處置하라는고. 鴨江上의 慘劇을 速히 解消식히라.

泄瀉腹痛 腸胃疾患에

泄瀉.腹痛.腸胃加答兒의 速治良藥

健胃固腸丸

一、本劑는오래동안實驗과多大한信用이잇는胃腸藥으로泄瀉腹痛胃腸病에代表的名藥입니다

一、더욱本劑는잘팔리기때문에類似品이만허엿사오니사실때에반드시谷回春堂製라고指名하야주세요

藥價 二十錢 卅錢 五十錢 一圓 二圓 三圓 五圓 十圓

小兒에게는專門의小兒固腸丸이有함

服用하기쉽고便利한 健胃固腸錠

泄瀉腹痛에 一回二錠
腸胃衰弱에 一回一錠

錠劑의藥價改定
價格半減에相當한內容增量을斷行한

新藥價
金三十錢(舊十二錠入)은二十一錠入
金五十錢(舊二十一錠入)은四十八錠入
金一圓(舊四十八錠入)은百二十錠入
金二圓(舊二百錠入)은五百錠入

大阪發賣元 [illegible]
谷回春堂
[illegible]

堤防우에天幕치고 廿三名의屍體收容

家族과親知等의哭聲만藉藉

鴨綠江上慘變의續報

【新義州支局電話】鴨綠江上慘事 사십삼명의인부대(人夫隊)가운데에서 이십삼명은시체로발견된 압록강상의 비극이오직 만주국세관리의 폭행으로말미암은 것인데 이십명은아직도 그행방을알수업고 시체도석간에 귀보한이상으로는 발견치못하야 아직도 맹렬한 조사를하고잇다한다 그런데 일반당국자측에서는고(古川)후루가와경찰부장을 위시하야 안전(安田)고등과장도변(渡邊)보안과장등은 복부(服部)신의주서장과 장곡천(長谷川)사법주임을 비상소집하야 오일오전 여명시부터 약사시간동안에나 그대책에 관한협의를하엿다 그것을마친후북부서장과 장곡천사법주임은 곳 현장에조사가서 압록강제방(堤防)우에천막을치고 이미발견된이십삼명의시체를 그속에수용하엿는데 주인자들과 가족은물론 친지들의 집합도엄금하야 그들은 멀리서제가노하잇는 제방우의 천막을 바라보며 대성통곡하야 말할나위업는일흔을정물을 흔드는듯하엿고 어지럽게 참한광경을 보는사람으로 하야금 눈물을 자아내게하고잇다한다

滿洲國稅關吏拘引 法的으로嚴重處罰

◇…古川平北警察部長 談

금번사건에대하야 고천평북경찰부장은 매우흥분된 어조로 다음과 가티 결심을 말하엿다 관리사이에서 일어나는 압록강상의 비극은 참으로 친통한일이다 저번아홉명살해사건이발생한때에도 만주국측에대하야 엄중한항의를 하는동시에 몃가지의 조건을 제출하엿든니 만주국측에서는 우리의요구조건전부를 승인하엿기 때문에 그사건은 그대로 락착을지엇섯다 그런데 그후얼마못되여 또이번가티 중대사건이발생되엿스니 위선철저한 조사를한후 엄중한항의를 제출하겟다 그리고 조사한결과 여하에따라서는 안동현에잇는 만주국측세관관리로서 이번에조선측까지 쫏처와서 중대사건을일으킨 즉접책임자 십오명을 전부구인하야 조선측에압래한후 법적으로 엄중한처벌을단행할방침이다

新義州團體蹶起 善後措置를協議

辯護士團卓昌河氏 談

금번의 대사건에관하야 신의주부내에잇는 조선사람측의 각단체에서도 일제히 궐긔하야 철저한처치를 당국에희망하기로되엿는데 변호사단(辯護士團)의탁창하(卓昌河)씨는 다음과가티말한다

이와가튼참사는 자조보는터이나 이제는 도저히참을수가업다 당국의처치를보아서 우리들도 무슨대책을 강구할작정이다 운운

自動車事故 今曉에兩件

▲오일오전두시에시내종로일정목 삼십이번지 치과의사 안병식(安炳植)(三)씨와 공민학교(公民學校)생도 안병훈(安炳勳)(三)군은 시내 종로삼정목 항공(航空)학교운전수 오재근(吳在根)(三)군이 운전하여가는 경긔도제구천사백십삼호자동차를 타고 시내 황금정육정목 경성사범학교압정류소근처를 지내가다가 안전지대(安全地帶)에 바치여 안병식군은 아래에 십일간치료를바들 중상을입고 안병훈군도 역시아래에 약칠일간치료를 바들상처를입엇다 자동차는 『펜더』에 손해 약십원의 파손을당하엿다

▲오일오전한시즘에 시내 남대문통(南大門通)일정목 어 십일번지 아페서 시내종로 오정목 오케택시운전수 송근용(宋根容)(三)군이 종로통으로 운전해가든 경긔도제구천사백일호자동차는 그때마침 반대방향에서 황금정일정목으로 조일(朝日)택시운전수 정연일(鄭延鎰)(三)군이 운전해가든 경긔도제구천오십팔호자동차에 바치여『펜더』가 파손되엿는데 손해는 약이십원가량이다 비가와서 압히서로잘 보이지 안햇기때문에 바로절근한곳에서 서로피하려다가 부다치게되엿것이라한다

라듸오聽取者 六萬臺에切迫

라듸오청취자의 칠월말현재는조선인 일만칠천일백이십칠명 일본내지인 사만칠천칠백팔십칠명 외국인 사백이십구명으로 합계 오만구천어백사십삼명이다 이를 전년동기에비하면 한계에잇서서 일만오천사백사십삼명의 증가를 보게되엿다 한다

다라낫든안해맛나 다시살기를哀願

拒絕當코街上에서無數亂打

못난사나이의蠻勇譚

못난사나이의가상만용극(蠻勇劇) 한마당—나흔날 오후한시쯤 되여 원적을 충남천안군직산면 군동리(天安郡稷山面郡東里)에둔 전원성(全院成)(三)은 벌서 전에 집을나가버린 자긔마누라 신씨(三)를 그리운가슴을 조려가며 차저다니다가 시내리화정(梨花町)백번지압 큰길에서 우연히 —아낫든 안해를만나자 다시가티 살기를 애걸하엿스나 한마듸로 거절을당하자 짜이고짜현순련정(戀情)과 울분(鬱憤)이 한거번에 북바처올라 그녀자를 가상에서 무수란타하야 혼도케하고 소관동대문서류치장에서 신세력경을하게되엿다

이름조흔收養女나 모진虐待에매질까지

單돈四十五圓에九年동안歌舞배우든中 十二歲少女의눈물겨운情狀

짐생보다 못하고 악마보다더한 양모의 서리빨가튼 눈찰과어름가튼 채찍에 우는 소녀의애화—시내종로 륙정목사십이번지 주봉용(朱奉用)(三〇)의 딸옹전(翁全)(一三)이란소녀는 작년류월이십구일 창신정(昌信町)이백팔집사번지 김옥주(金玉珠)(三三)가명(假名)이라는 녀자에게 구변동안 가무(歌舞)를 배워 기생노릇식히는대신에 사십오원이란돈을그부모에게 주기로하고 이때까지 동안엽스나 남보다도 더사랑하여주는 부모의슬하를떠나 전기김녀의집에가잇섯다 그러나 원체가애정을떠나 단지자긔리익을 위하야길러주는 양모라 어린옹전이가하는 조금한과실도 그에게는 눈찰과 청죽을마음대로 솜긔회를주는데 지나지 못하는것이엿으로 이것을안소녀의부모는 얼마전에 자긔의딸을 도로찾아 마애정의 보금자리인 자긔집으로 데려오자 전긔김녀는 당초의 게약을무시하고 그동안 양육비를 엇다고한달에 십오원식 지불하기를 어려송하게 매로써매친 소녀의 피흔적을 증거로 도리혀 상해죄(傷害罪)의 고소를하려 소관동대문서를 차저갓스나 면원이 업서 다시사람을 보내게되엿다

言爭끄테刺傷

봉(張壽泰)(三)등의남녀 이십오명을 걸거하엿다 그들중에는 전과자가 반수나 되며 관철정(貫鐵町)모려관에서 못들려온 윤경호(尹京浩)(三)는 주사긔라청진 긔를 가지고 잇섯는바 허가업시 의사노릇을한 혐의가잇서엄중한취조를 맛게되엿다

나흔날오후세시쯤되여 부외서 이가와서 훼방을노흔것이 싸움이되여 전긔최는 멕개 마저다가 이것을 분히생각하고 그는 가지고잇든 주머니칼을빼여 손의 얼굴긔라를하부로찔러 그자리에 쓰러지게하고 도망질한것을 뚝섬면사무소압헤서 발견체포하엿스며 피해자는 부근독도병원(纛島病院)에입원치료중으로 이주일이상의중상이다

비에막혀묵는틈에 各旅館一齊檢索

鍾路署에男女廿五名을押來

시내종로서에서는 요새계속하야 내리는 비로인하야 용의자들이려숙등에 웅거하고 잇슬것을노리고 오일새벽형사대가 총동원되여 판내를 샅샅치 검사하엿는데 일정한 주소가업는 장수봉(張壽奉)(三)등남녀 이십오명을 걸거하엿다—독섬(纛島里)독번지 구루마꾼 최명인(崔命仁)(三)은 동부세사랍과함께 긴치 사백칠십칠번지 조동환(趙東煥)의집문전에서 윷노리를하고잇는데 그동리 이백삼십번지숫장사손이출(孫一出)(三)이가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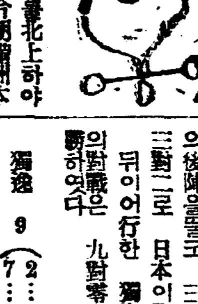
鐵路納凉하다가 生命빼낀두靑年

一名은卽死、一名危篤

철도선로에 개로드러누어 낫잠을 어떤젊은이 두명이 선로한가운대에 드러누어 낫잠을자고 잇는것을 발견하고 빨리 정거를 햇스나 밋치지못하고 치엿는데 한명은즉사하고 한명은다 밧상을 당해서 목숨이 위태하다고한다 자뻐가 횡액당한 두청년—지난 나흔날 오전여덜시반쯤되여 신북청(新北靑)을 떠나서 북계(北溪)로 가든 제오백사십륙호 렬차가 려호—서진(呂湖—西津)과점 백오십삼『키로』부근을 지나갈때 마서이 원산(元山)과점

上流地方降雨로 漢江三米突增水

개엿다 흐렷다하면서 두주일동안에나 빼치여 질금질금나리는 장마비에 딸아 한강(漢江)물도불엇다 줄엇다하고잇다 그리하여 지난번비에는 수위(水位)가 다섯메돌』에까지나 올라갓다가두어날동안 날이개이는바람에 갑작히 물이 줄어서저 평상수위로 도라가고 말것인데 지난사흔날 저녁부터 다시 나리는비와아울러 려주(驪州)가평(加平)가튼 상류지방에서 나려올리는물로말미아마 한강물은지난밤이래로 다시 불어가고잇서 닷새날아참 여덜시현재로세『미돌』의 증수를 보이고잇다。 닷새날오전다섯시현재로 춘천(春川)은 다섯『미돌』다섯『센치』에 가평(加平)은 가튼다섯시현재로 다섯미돌의 수위에 각각 달햇는데 아프로 이상상류지방에서 계속해서 비가나리다면 한강물도 작구서 부러갈모양이다。



概況 颱風은黃海를北上하야 新義州附近을지나 今朝滿洲本部에잇다 또 副低氣壓은 天津北平과 靑島 上海間에잇다 高氣壓은 日本南東海上에퍼지고잇다 昨日國境을 除外하고 거의 全朝鮮에비가왓는데 今朝는 大槪호리다 滿洲는天候晴、日本內地는曇天이다 來日도호리며 一時小雨가잇슬지도 모른다

豫報 오늘밤京城地方은호리고 어떠면 小雨가잇다 來日도갓고

京畿全區도갓다

昨日最高	二四度二
同 最低	一九度八
今朝最低	一九度八
今日正午	二五度八

恩惠를원수로갑흔 싀골少年遂發見

家人을불러드려 재웟드니 主人돈훔치고潛跡

은혜를 원수로갑는소년—원적을 경긔도양주군진건면 사릉리(思陵里)정(鄭國奉?)(三)의집안에서 반찬을주기를 고 그길로도망질하야 고양군 신도면(神道面)? 아니 『荊州面?』 련(?)… 에전화하엿다 이것을본 전긔조씨 남수(?)의 소년이라 …정선(鄭善)(一八)이란소년은 엄마전에 몸을의탁할곳이업서 사방으로 헤매다가 이소년의정상이 너무도 불쌍하야 그집에다려다두고 먹을것을 주엇는데 이 소년은 지난달 이튼날 시내가까지 나가 떠돌다가 소개로 가서 주인의돈훔치고 업서진것이다

羅津、雄基間에 要塞地帶新設

라진(羅津)、웅긔(雄基)두항구를 중심으로한 두만강(豆滿江)과잇닷는 일본해 연안일대의 국방상 견지에서 지난하롯날 남짜로 요새지대(要塞地帶)로 지정되여맨술그먼히 넘어가고말엇다 그리이다

京義道를中心한 氣象特報는解消

別로큰비도업슬듯

경성측후소의 발표에의하면 지난사일오후팔시부터 경긔도전구를 중심으로 태풍과폭우가잇슬 듯하엿스나 다행히 별피해도업섯고 극히 평온한 가운대에서 대한경고는 이로써 해소된세음이다 아직 완전히 개이지는 안햇스나 별로 큰비는올것가지 안타 그리하야 지방긔상특보로써 주의하엿든 태풍과 폭우에

"第二太勞"公判 無期延期

張會健、朴世榮事件

오일경성복심법원 형사부법정에서 열리기로되엿든 제이태로(第二太勞)사건피고 장회건(張會健)박세영(朴世榮) 송성관(宋成寬)등세명에대한 언도공판은 형편에따라 무긔연긔로되엿다

仁川讀書會事件 李億根等에求刑

二年과一年半의懲役

속칭인천독서회(仁川讀書會)사건 피고부천군다주면장의리(富川郡多朱面長意里)리억근(李億根)외 한명에대한 치안유지법위반 사건제일회 공판은 오일오전아홉시 경성지방법원형사부 법정에서 산하(山下)재판장주심 향천(香川)검사관여로 열리엿다 먼저 사실심리에들어가서 리억근부터 심리를 시작하엿는데 그들은모다 다마좌의서적이상초하류를 읽엇슬뿐으로 독서회가튼회를 조직한사실은 업섯다고 비밀결사를조직하려하엿다는것을 극력부인하엿다 심리가끗난다음 검사로부터 다음과가튼 구형이잇섯다 그리고언도는 오는칠일에 하기로되엿다

▲富川郡多朱面長意里李億根(三)懲役二年 ▲仁川府柳町二二 金翼男(二)懲役一年六月

◇…伯林올림픽大會實況電送寫眞—八月三日 午後十一時半(朝鮮時間)國際伯林特派員發【一萬米決勝의接戰光景、先頭로부터라·이소호로、가스코…(?)…】

超人國오웬스選手 走幅跳八米〇六

女子圓盤에「마」嬢世界新記錄

伯林올림픽第四日

【伯林올림픽스타디움四日發同盟特派員】世界올림픽第四日은四日午後六時三十分(朝鮮時間)부터 스타디움에 競技를 하키—場 伯林競技場 키르 各競技에서 一齊히열렷는바 이날의 各競技結果는다음과가다

【八百米決勝】1웃드라프(米)一分五二秒九 2란조이(伊)一分五三秒 3에드가—드(加)一分五三秒六 4크라압스키(波)一分五三秒八 5훅보스(米)一分五四秒 6윌리암손(米)一分五五秒八

【走幅跳決勝】1오웬스(米)八米〇六(올림픽及世界新記錄) 2롱그(獨)七米八七(올림픽新記錄) 3田島直人(日)七米七四(올림픽前記錄) 4마페이(伊)七米七三(올림픽타이記錄) 5라이(獨)七米七三(올림픽타이記錄) 6그라—그(米)七米六七

【女子投圓盤決勝】1마우엘마이어(獨)四七米六三(올림픽及世界新記錄) 2와이조라(波)四六米二二 3모렐라우엘(獨)三九米八〇 4中村コ(日)三八米二四 5峰島秀(日)三七米三五 6뮬레·스트룸(瑞典)三五米九二 (寫眞上은오웬스君下는마우엘孃)

【女子百米決勝】1스테판스(米)一一秒五 2와라쉬비치(波)一一秒七(以上올림픽及世界新記錄) 3크라우스(獨)一一秒九 4드린겔(獨) 5로자—스(米) 6알프스(獨)

【四百米障碍決勝】1하—딘(米)五二秒四 2로—링(加)五二秒七 3화이트(比)五二秒八 4바라—손(米)五三秒 5에갈레스(白)五三秒 6맨디가스(希)五四秒二

【五千米豫選】▲第一組 1세라킷(伊)一五分一秒 2지—렐트(丁)一五分二秒八 3레리(芬)一五分四秒四 4살미넨(芬)一五分六秒六·5라—브(英)一五分六秒八 ▲第二組 1한손(瑞典)一四分五四秒 2村社(日)一四分五六秒六(日本新記錄) 3와—드(英)一四分五九秒 4레히거(芬)一五分〇秒 5사란베링(米)一五分〇秒 ▲三組 1헤첸트(芬)一五分一〇秒 2크로—즈(英)一五分一〇秒二 3노리(波)一五分一一秒二 4헬스트롬(瑞典)一五分一一秒 5하…(日)… 1셀(瑞)一五分二二秒六 9田中(日)…

【四百米障碍準決勝】▲第一組 1하—딘(米)五二秒二 2화이트(比)五二秒四 3안디가스(希)五二秒八 ▲第二組 1바라—손(米)五二秒八 2로—링(加)五三秒一 3마갈레스(白)五三秒三

各國陸上得點表(第四日現在)

	百米	八百米	一萬米	四百米障碍	走幅跳	走高跳	投砲丸	投槍	合計
米國	14	9	0	9	15	7	6	3	63
獨逸	2	0	0	0	0	7	10	11	30
芬蘭	0	0	15	0	4	0	5	3	27
日本	0	0	3	0	2	4	0	0	9
加奈	0	4	0	5	0	0	0	0	9
伊太	0	5	0	0	0	3	0	0	8
瑞典	1	0	0	0	0	0	0	4	5
和蘭	4	0	0	0	0	0	0	0	4
比島	0	0	0	4	0	0	0	0	4
波蘭	0	3	0	0	0	0	0	0	3
英國	0	0	2	0	0	0	0	0	2
伯國	0	0	0	2	0	0	0	0	2
希臘	0	0	1	0	0	0	0	0	1
亞爾	0	0	1	0	0	0	0	0	1

女子陸上得點表

◇…大會第四日現在

	百米	圓盤	投擲	計
獨逸	8	10	12	30
波蘭	5	5	4	14
米國	8	0	0	8
日本	0	5	2	7
太	0	0	3	3
瑞典	0	1	0	1

對瑞典蹴球 金君活躍

【伯林올림픽스타디움 五日發同盟】强豪瑞典을맛난 第一回戰에이긴 日本蹴球코—치 工藤孝一氏는 다음과가티말한다

猛練習이奏効하야 後半마즈막에이르러 저욱이疲勞하엿스나 奮鬪하야 勝捷하엿다 瑞典은 恒常 롱패스로 攻擊함에反하야 우리는得意의 숏패스로敵陣을攪亂하엿다 FW가빠라인의 健鬪을信賴하고 攻擊에나아간것이 勝因의하나이다 得點의찬스메이커」인 CF川本와 LI加茂兄、RI右近、LH金容植君等이 눈부시는活躍을 보여주엇다 압흐로强敵伊太利를 粉碎할準備를 가지고잇다云云

(寫眞은 金容植君)

日本蹴球勝 對瑞典第一回戰

【伯林올림픽스타디움四日發同盟】蹴球第一回인 日本對瑞典戰은 四日午後五時(朝鮮時間午前一時)부터 伯林球場에서行한바 三對二로 日本이이겻다

日本 3 (0—2 / 3—0) 2 瑞典

【經過】前半日本은 風勢不利하야 有利한게임을進行하드니 도리혀 瑞典의强襲을바더 二點〇으로 리—드를당하드니 後半에드러가 日本俄然奮起하야 瑞典의後陣을蹂躪코 三點을너허 結局三對二로 日本이勝利하엿다

하키—二回戰經過

獨逸 9 (2…0 / 7…0) 0 阿富汗

佛國 一 (一…〇 / 〇…〇) 〇 瑞典

和蘭 四 (二…一 / 二…一) 二 白耳義

亞爾然丁 六 (五…四 / 一…一) 五 丁抹

뒤이어行한 獨逸對『아프간』의對戰은 九對零으로 獨逸이大勝하엿다

都市野球第四戰日績

第七回 全日本都市對抗野球大會第四日은 五日午前十時半부터神宮球場에서 續行한바 그戰績은다음과가다

長野	000200020	4
太田	000500041A	10

독 애

(廣告) 大同製藥社

第十四回決算公告

一、貸借對照表 昭和十一年六月三十日 現在

資產ノ部 負債ノ部

未拂込株金 [illegible] 株金 [illegible] 有價證券 [illegible] 不動產 [illegible] 什器 [illegible] 未收保險料 [illegible] 代理店及他店債 [illegible] 未收再保險金 [illegible] 供託金 [illegible] 銀行預金 [illegible] 計 [illegible]

法定準備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責任準備金 [illegible] 支拂備金 [illegible] 退職慰勞基金 [illegible] 他店借 [illegible] 未拂保險金 [illegible] 社員身元保證金 [illegible] 未拂配當金 [illegible] 假受金 [illegible] 利益金 [illegible] 計 [illegible]

二、利益金處分 法定準備金 [illegible] 株主配當金(七年分) [illegible] 役員賞與金 [illegible] 退職慰勞基金 [illegible] 特別積立金 [illegible] 後期繰越金 [illegible]

昭和十一年八月三日 朝鮮火災海上保險株式會社

三、任期滿了ノ取締役社長石川徹 盛八重任セリ

朝報案內 社員採用

社員二名至急採用 月給二十五圓以上 安定年齡二十才以上 經驗者 公吏 銀行會社 有經驗者 優待 履歷書寫眞添付 京城府黃金町二丁目 昭和生命京城支部

中學及商業學校出身活動家至急將來有望한고市內在住의確實한保證人이有한靑年(二十五歲—三十五歲)採用 希望者는自筆履歷書郵送 電話紹介面談謝絶 京城 慈惠堂製藥株式會社

月收二百圓內外確實 京城仁川有給駐在員數名募集元官公吏乃至紳士的人格者를求함 要保證金 京城府古市町二(京城驛前) 履歷書急送採否面談決定 鮮滿支總代理店 三和商事京城支社 電話本局二八二三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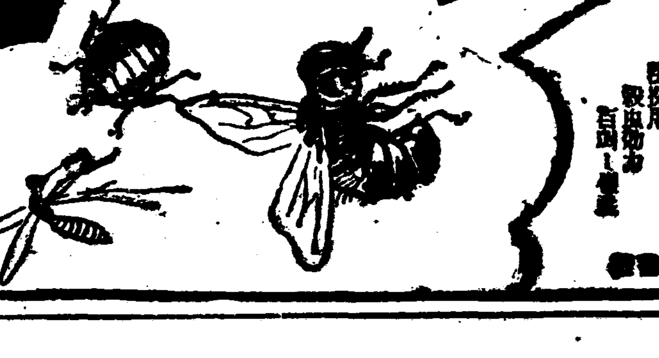
引伸寫眞通信取扱 大小集會를勿論하고寫眞一枚만보내시면一復寫에도 返還함 四切寫眞一圓五十錢 全紙五圓 技術은 [illegible] 谷山邑 丸全屋寫眞部 振京五〇四五

陸地測量部發行 五万分一地圖販賣元 目錄送 京城 東亞商會

內科チストマ토질十二指腸虫채독科專門 京城金弘琯內科醫院 總督府前 電話光三一三 振替京城五七貳貳

日英米獨佛五箇國特許 器械鍼療法 講習會開講 實地科、通信科、速成科、特典全國無檢定開業 履書手續必要關係書類完備學理開業文獻送呈(四錢要) 大阪市西區江戶堀下通五丁目 奧村療法學院 電話土佐堀二八四三番

强力殺虫劑 スレピン(蠅必立死)



여름의强敵 害虫무리 驅除하라!

무엇때문에蛔虫이무서운가

蛔虫이 人體에寄生되면 重要한營養을 吸收하야 成長되는故로腹痛을이르킨든지 熱이나든지하야小兒는밤에울고、몸이 瘦瘠케되고、그外에여러가지병을 이르키며乃終에는 生命을危險케하는일도 만흐즉 반드시『산독니넘과자』(珊篤尼涅菓子)를먹여서蛔虫을驅除케하십시오 蛔虫의卵은 每日잡수시는 野菜漬物、其他食物 에부터서 人體의內臟에 드러가面害를끼치며、特히小兒는 蛔虫에걸니기쉬운關係로日本서는 日曜日마다『산독니넘과자』(珊篤尼涅菓子)를먹입니다。『산독니넘과자』는數十年來의經驗과信用을가진有名한虫下菓子 이오즉安心하고愛用하시라

大阪天王寺ノ虫下シ 珊篤尼涅菓子 산독니넘과자 (岩崎大海堂セメン菓子) 類似品잇으니 商標에注意하시압

◇八月五日晝間부터三日間大公開 每日三回晝夜公演 正午十二時부터六時까지 繼續映夜間八時始映 大衆料金階上十五錢階下十錢均一 空中活劇 空中殺人光線 랄프·베리미氏 大熱演 에 라디오社超特作 全發聲日本版 西部活劇 大陸出沒紳士 갈렌머氏監督 젠·하—트氏 마로 주연 中活劇 金剛心을燒却하는光線에發明을이잇다、이것을使用하야飛行機를擊落식히는一黨이잇섯다新聞記者와活躍하는 怪漢을 通하야 大冒險의空 松竹蒲田超特作映畫 齊藤寅次郞氏監督 現代劇 馬 歸る 主演齊藤達雄氏高松榮子孃 鍾路五丁目 電光二二番 第一劇場

◇八月四日부터大公開 料金階上三十錢階下二十錢均一 土曜日曜祭祝日은晝夜二回公開 낫一時밤七時四十分始映 ◇R·K·O·라듸오超特作日本版 豪華版 男子의敵 監督 존포오드氏 主演 빅터마크라그렌氏 全日本의批評家가異口同音으로「本年度아메리카映畫베스트텐의一位」라고 絶讚한名篇 ◇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奇怪大冒險大活劇 洞窟의女王 監督 어빙·피첼氏 主演 헬렌 가—한氏 란돌프·스콧트氏 라이다! 하가—드의怪奇小說이 五年의最高映畫技術에잇서世界의最大의東京教育映畫社超特作 紀錄映畫 パラマウント全發聲으로再現!! 現代悲劇 愛의曲 主演 夏川靜江孃 府內觀水洞 電話龍三三三番 東洋劇場?花劇場

納凉漫筆 藝術에도 地閥?【三】

湖岩

일직 우리金澤榮先生으로하여금 讚揚은 詩中虎라고 歎하게하든 日本漢詩壇의 巨匠인 森槐南이 죽은뒤엔 누구보다도 國分靑厓가 斯界의第一人者이다。

요새 東京에는 靑厓에서 이漢詩大家國分靑厓를 紀念으로하야 漢詩大講座를 刊行한다。벌서三冊이 나오게되바 그內容을 一瞥하면 漢詩가 日本文學에 미친影響과 漢詩와東洋畵의關係。그밖에 方面으로漢詩를 小室翠雲의 論述한 漢詩와의南畵의 一節가를것은 가장 情趣가 흘렀다。

詩는 소리잇는 그림이오 畵는 소리없는詩니 詩와畵는要컨대 소리의 有無가 다를뿐이다。

그는 다시 東坡의『味摩詰之詩、詩中有畵、觀摩詰之畵、畵中有詩』를들어 말하고 나가 畵로써 詩를 說明하려할새 畵에三品이 잇스니 神品、妙品、能品이라 神品이 第一이며 畵에六法이 잇스니 氣韻生動、骨法用筆、應物象形、隨類賦彩、經營位置、傳模移寫이나 氣韻生動이 第一이다。詩品으로 氣韻生動하는 것이 畵品의 上乘이다。

그리고 그는 陶淵明詩中에서 詩品으로 氣韻生動하는 畵에 比할만한 數三句를 들엇는데

◇

採菊東籬下。悠然見南山。

◇

狗吠深巷中。鷄鳴桑樹顚。

또王維詩中에서 詩品으로 氣韻生動하는 畵에 比할만한 것으로 七言에는

漠漠水田飛白鷺。陰陰夏木囀黃鸝。五言에는

空山不見人。但聞人語響。返景入深林。復照靑苔上。

◇

獨坐幽篁裏。彈琴復長嘯。深林人不知。明月來相照。

를들엇다。王摩詰柳의 詩를 모다 이와가티 들어 말하엿는데 이것이 古人의 이미論評한것으로 小室翠雲의創見이 아니지만 그는어찌스든 有名한南畵家로서 漢詩를 南畵의見地에서 말한것이 그럴듯하다。

그러나 내가 여기 말하려는 것은 小室翠雲보담도 漢詩大家國分靑厓이다。그는漢詩大家인만큼 그의論評은 一詩一句라도 泛泛하지 아니하고 注意에注意를 거듭하야 精細하엿다。

그가 스스로 評釋한『明代淸代漢詩大講座』第八卷의 序言에 말하되

詩經의詩가 古今李唐으로서 第一을삼는다。다음에는 朱明이다。朱明三百年에 作者가 구름가티 일어나 擅藻를 施作이 적지안타。이講義의 紙面의關係上 겨우八十餘首를 採收함에 不過하니 실로 九牛一毛의 感이잇다云云

그리고 採收된人物로는 中山王劉基를비롯하야 袁凱、高啓、李夢陽、何景明、邊貢、李攀龍、王世貞그他諸家이다 그中에는 汪廣洋의 蘇溪亭詩도 收錄되엿는바 蘇溪亭上草漫漫。誰倚東風十二闌。燕子不來春事晩。一汀烟雨杏花寒。

그는 다시 이詩에 對하야 아주 詳細히 字法의 意味를 解하고 作者의 履歷까지 적엇스며 또 이詩와全句와 비슷한 古今의 詩를 大部로 들어 比較하다가 最後에 가서는 朝鮮作者의 朝鮮詩 ……

王庭。燕子不來春又去。滿庭紅雨落花寒。

을 附記하엿다 그러나 그는 이詩作者를 明人이라고 적어 노왓다 中世作者가 아니라 明詩에 실려잇는 朝鮮詩人을 明國詩人으로 誤記되엿다 그러나 어찌하든 朝鮮人이라 적지아니하고 어렵지 비우에 것스럿다 이것을 볼때 내 漢詩도 藝術에도 地閥을 보는가。

學藝

八月創作評…… ❶ 批評態度에 對한 辯釋 (上)

金煥泰

前日나는 某紙上에서『批評文學의 樹立을 爲하야』라는 題目으로 批評文學의 確立을 防害하는 그릇된 批評的傾向을指摘하면서 나의 批評的 態度를 宣明한일이잇섯다그랫드니林和氏가『文藝論壇의 分野와 傾向』이란 論策中에서 筆者의 批評的傾向을論하면서 該論文을 批判하엿다。그러나 그批判에는 나의所論을 誤解乃至 曲解한點이만흔것으로 八月創作評에 들어가기前에 氏의誤解와 曲解를 指摘하고 是正하야 나의 批評的態度를 明白히 하여두고저 하는바이다。그런데 氏의 該論文中에는 槪念의 混亂、넘어나非文法的 文章의構造、理路의 中斷과 飛躍으로 因하야 到底히 나의 理解를 許諾하지 안는點이 만허 意識的으로 論爭을避한點이 적지안타는것과 그리고 나의 論難의 對象이된 句節에도 氏의 論點이 어데잇는지判斷하기 힘드는곳이 업지안핫다는것을 미리 言明하여둔다。

林和氏는 나의

『그리하야 文藝批評은 한作品이 얼마만한 宣傳과 啓蒙의價値를 가젓다거나 어떠한思想과 現實과 意圖를 가젓다거나를 測定하고 指摘하는것이 아니라 그作品에 나타난 思想과現實이 얼마만한 程度에 잇서서 作家의 想像力과 感情속에 溶解되엿스며 그것들을 어떤方向으로 指導하라든 그作者의 意圖가 얼마만한 程度에잇서서 實現되여 잇는가 그리고 그結果 그作品이 얼마만한 程度로 우리를 感動시키고 기뿌게하엿는가를 말하지안호면 안된다』

라고 한말을 引用한다음 아래와 가티말하고 잇다。

『勿論 文藝批評家의 意圖는 傳達手段의 內容을(그表現形式共히)分析하는것이 아니라 그意圖가如何히 作品가운데 表現되엿는가?

即 所與의 描寫된 現實은 爲先 作家의 現實認識과 一致하고잇는가?『잔두는 描寫對象에 適合한것인가? 作品의『컴포지순』은 그思想을 開示하고 잇는지 或은그 思想을曖昧하게만들엇는지? 그리고細細의 性格과 環境은 適當이符合되고그것은 함께 高度의 藝術普遍化의 水準에 到達하엿는가? 또敍述이나 會話가 說得力을發揮할만한아름다운 言語에依하야 表現되엿는지 與否가 藝術的表現形式의 評價의 基準이다。 가운대 實現되엇는가를分折하는것이다。 이곳에 藝術作品을 그內容과 形式의 統一이란藝術의 獨自的 側面에서 檢討하는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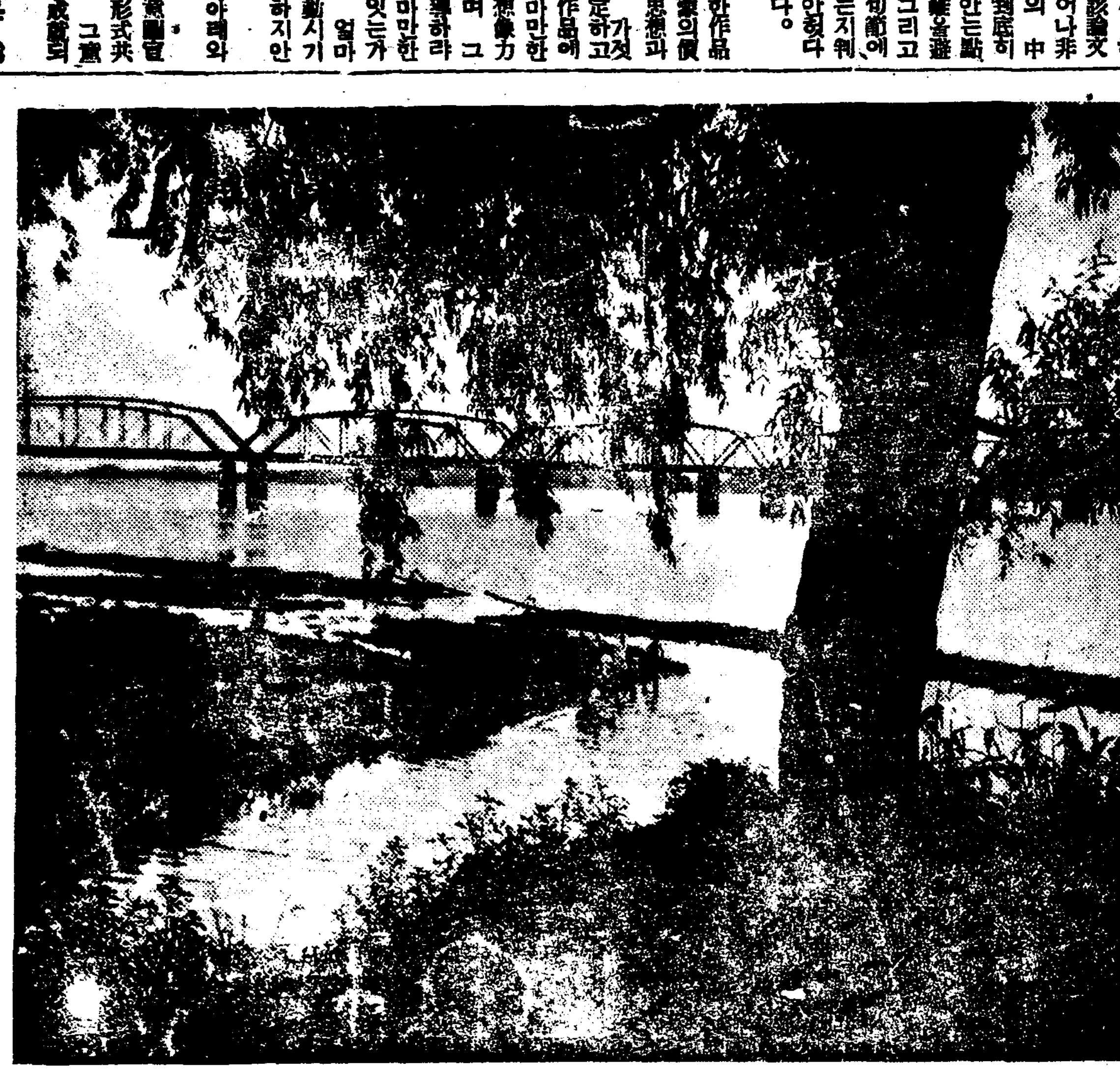
말의 素材와가튼 이어수선한 語句에서 나는 適確한 思想을 차저내이기가 퍽으나 힘든다。그러나 그에좀더 思想的彫琢을 加하고 文章의 整理와 文法의 修正을하고 誤植인듯한 곳을校正만하면 그根本的思想은 氏가 引用한 나의말에 表示된思想과 結局 一致되는것이안인가한다。

그럼으로 어 點에 對해서는 나는 조금도 氏를 論難할 意圖를 가지지 안는다。

그러나 이말에 이어서 다시

『그러나 金氏의 말과가티 批評이 어떤作者의 一定한 思想的藝術的 意圖가 如何히 表現되엇는가 하는 形式的인 側面에만 限定한다면 批評은 科學으로서의 價値를 喪失하게되다 더욱이『意圖』가 作家의『想像力』과『感情』속에 融解되엿는가 안하엿는가는 實상 藝術의 形式的 部面에 잇서도 그 微少한 主觀的인 一部分에 不過하고그 全部(形式的으로도!)는『어떤 方向』으로 잇고라고 하엿는가도 前記『想像』『感情』과 共히 오히려 作家의 主觀 意圖의範圍 밧글 나가는것이아니다 事實作者의 意圖가 如何히表現되엿는가하는 形式的側面이란 것은 作品이 提示하고잇는 文學的現實이 藝術로서의 必要한 一個의客觀的表現手段에 依하야 開示하는것이다。』

完成되엇는가 안하엿는가를 한말에對하야는 나는 氏의 의言說에對한 넘우나 甚한 誤解와曲解를 是正할義務를느끼



黃……昏

漢詩募集

題……蓮

押……心

限八月二十五日

(薄謝進呈)

現代文學의 新局面 ―그哲學과의關聯性에對하야― ⑤

金午星

그러나 文學과 哲學은 前世代의 旣成文化에잇서서 서로 和合할수업는 안티노미ㅣ와 關係를지여노왓다。이 밧갈지아혼 遺産은 우리들로 하여금 文學과 哲學과의 聯結을 防害하고 잇다。그러면 우리는 이障害를 어떠케克服할수 잇슬까?

文學과 哲學이 聯結하기 爲하야는 우리는 먼저 觀照的立場을 克服하지 안호면 안된다 웨ㅣ그러냐하면 觀照的立場이文學과 哲學을 안티노미ㅣ的으로 分離시킨 까닭이다。모든 人間이 建設과 創造에 向하야 實踐的으로 行動하든 歷史的時代의 生成期에 잇서는 파토스와 로고스는 서로 聯結되여 잇섯다。그러나 社會의 盛熟期 乃至 頹敗期에 잇서는 모든 人間은 建設과 創造의 代身에 고요한 觀照的生活을 享樂하게된다。그런데 觀照的 立場은 무엇보담純粹를 要求한다。建設과 創造의 行爲를 抛棄한 그들에게는 파토스의 代身에 純粹感情、이데오로기ㅣ代身에 純粹論理 즉 이데ㅣ가 要求된다。純粹는 어데까지나 排他的이다。그러므로 觀照的立場에서는 藝術的感情은 로고스를 한개의 異敎徒로 박게여기지안는다。여긔에서 이데오로기ㅣ업는 形式主義文學이생긴다。그와가티 純粹論理는 行爲의 熱情인 파토스를 異民族으로 박게 取扱지안는다。여긔에서 哲學은 그本來의 性格인이데오로기ㅣ를 抛棄하고 이데ㅣ로서 滿足하는 觀念主義에 흐르게 되것이다。그러므로 이러한 觀照的立場을 超克지안코는 文學과 哲學은聯結할수업다。

觀照的立場을 超克하려면 우리는 行動의立場을 가질수밧게 업다。行動의 立場에잇서는 純粹란 한개의 叛逆에 지내지안는다。行動의立場은 一切의것을 行動에 參劃하는限에서만 容認한다。그러므로 行動의立場은 純粹感情、純粹論理의 代身에行動의 感情 行動의 論理를 主張한다。그리고 여긔에서는 感情과 論理는 排他的이 아니고 行動을 媒介로하야 서로 聯結하게 되는것이다。이제 나는 이것을行動的文學과 行動的哲學의 內面性에서 밝히려한다。

○

行動의立場은 일즉이 純文學또는 藝術을 爲한 藝術을 認定치 안는다。오직 建設과 創造의 行動에 參劃하는대서만文學도는 藝術의 存在性을 認定한다。實際에잇서 純粹藝術은 可能한것인가? 사람들은 藝術의純粹性을 維持키 爲하야 優雅 壯美 崇高等의 이데ㅣ的인것을 藝術의 領域으로 選擇한다。그러나 生活 또는生活體驗을 떠나 藝術은 成立될수 잇슬것인가?일은바 이데ㅣ的美의 世界라도 結局은 人間生活에 잇서의 現實的欲求를 抽象化한것이 아닐가?人間의 美的享樂에의 現實的欲求가 그러한 이데ㅣ的世界를 想定한것임에 틀림이 업슬것이다。그러타면 藝術은 오히려生活을 爲한것이여야 하고 生活行動에 參加하는데서만 그 存在의 意義를 確保할수 잇지 안흘까!藝術은 感情의 組織이라고 말한다。그러나 感情은行爲를 通해서만 自己를 實現한다。

學生通信 ―蒐集行脚―(四) ―山上茅屋의하로밤―

城大　金思燁

이奏奇한 座談會가 銀河水흐르는 시원한밤하늘아래에 벌어질때 脾胃조코 배심잇는이면 누구나 다 自己의 全機能을 發揮하야 여러사람을 興味시키려고할때 保護活動도 開始되여 弟로하여곰 더업는 好奇心과 내온精神의 注意를한곳에 集中시키게합니다。

그러나 이모힘이못나서 제各己 回歸할때면 나는 大槪失望을안고 힘업시 어둡고 모기만흔 房으로 도라옴이 例事입니다。그것은 그들이 이야기를가장適切히 表現하려고 散업는俚諺을 巧妙히 運用하지마는 모다 일즉이 弟가蒐集한中에 드러잇는것이고 各言同意異形으로 變貌하며 使用될뿐입니다。弟는 이方法以外에 或口辯잇고 諧謔을즐기는이가 잇다면 차저가서 俚諺을얻거든 生覺나는대로 말하여보라고하야 그것을 聽取하려고들면 모다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맙니다。

其外에도 俚諺을 읽혀들리고 그에關連된것이업는가 或은 한俚諺이 이地方에서는 어떠케表現되며 使用되는가 무릇地方的特色、變遷等을 調査하고잇스나 어든보람은 하찰것업는 貧弱한것입니다。

P兄! 只今어느곳까지 蹈破하시여서 調査를 하고계십니까? 用意周到하신 兄이신지라 徹底한 調査와 만흔成果를어드시엿겟지요。

弟는 비록 이번거름에 豫期하엿든것의蒐集은못하엿스나 農村에對한 認識이 한層기퍼진듯합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弟의注意를 喚起시키것은 農村女子의 朝鮮文狀況입니다。女子는 七八歲쯤되면 어머니가 한글을먼저가르킵니다。차차로 初步的知識을어더 自己가 能히 綴字하여 運用하게되면 白紙로冊을만드러 毛筆로謄寫 書翰集(이는代代로傳해오든것)을베기고 或은 歌辭(이것도代代로傳해오든것)를베겨 이가운데 便紙쓰는法도 배호고 美詞麗句를 攄得케됩니다。이書翰集과 歌辭는 純全히 女子들의 自作으로 그中에는 年代로도 相當히 오래되것도잇고 文學的見地로 볼때에 優秀한것이 만하 萬若이것을 蒐集하야 適當히 整理한다면 훌륭한 婦人文學의 一部를 建設할줄압니다。그리고 이가운데는 語學上 貴重한 資料가마니 語學者들이섯불리 死滅語라고 速斷해버린것도 이곳에는 그生命이 保全된것도잇고 或은 古書中에 그語意가 曖昧하든것도 이곳에서는 아모런疑訝도업시 使用되고잇든수도잇습니다。이現象은 全혀書翰集或은 歌辭等의 保全活用으로 他方에는 벌서 寥息한 言語가 그대로 남어活動할餘地하고잇는 所以일가합니다 이點特히言語學者들이 留意하야 蒐集或은直接調査한다면 만흔보람을 어드리라고생각하엿습니다。弟도 書翰集 或은歌辭等을 어드려고 하엿스나 좀처럼 讓渡하지안호며 其中에도 몃몃집에서 數冊求하엿스며 佳作으로엇기어려운것은 轉寫하엿습니다。

P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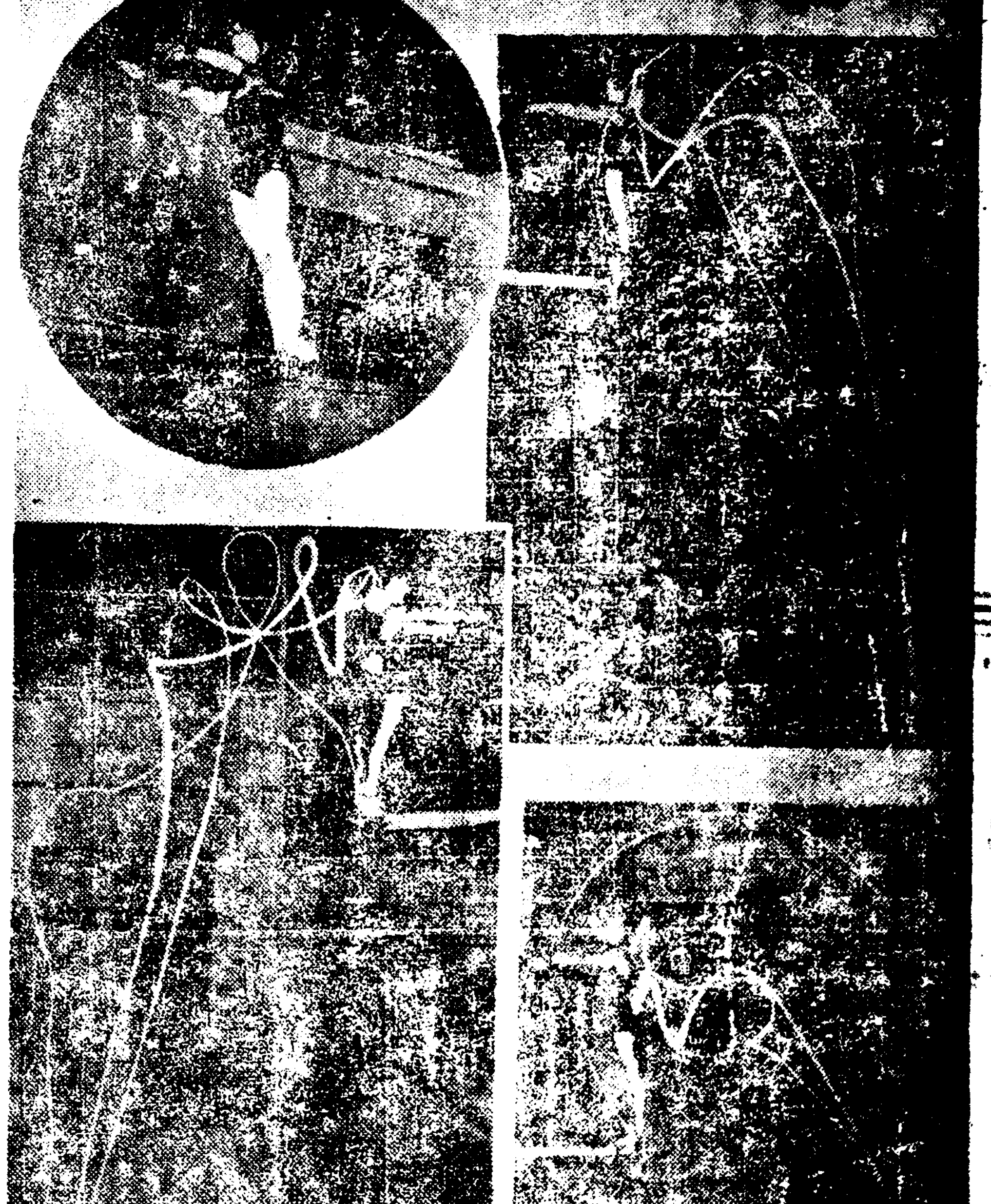
초저녁부터 후적후적나리든여름비가 이제 暫間긋첫습니다。호롱에다 두번이나 石油를카라너헛것마는 그것마저 다다럿는지 燭光이 弱해지고 山아래마을에서는 두홰시재 닭소리가들여옵니다。

저숫작새는 초저녁에 弟가山내잇는 방뒤를 소나무에서는한다리 숫작새우름이 들여옵니다 우에잇는 이草堂으로 차저와서 궤짝올고와서 冊床을삼아 想을가다듬어가면서 兄에게 올리는 이글을쓰기始作할때부터 울든것이 只今까지 끄치지안습니다。//솟작、솟찌악//하고 우는소리는 千緖萬念에차혀 이밤을밝히는 외로운내마음에는 이世上을떠난 C의 넉가리 凄凉도하고 구슬퍼서 잠잣코듯고 잇노라면 저절로 눈물이고이군합니다。

이마을에는 이틀에 한번式郵便配達夫가 옵니다。이밤이 밝아 아침이오면 弟는 이 洞里를 떠나야하겟스므로 떠나기前까지 이글을맛처 오늘올 配達夫便에 붓처야하겟스니 自然忽忽하야 이처럼 序업는글이되고말엇습니다

休暇도 한달남짓남엇습니다 이니 오라지안허 가을이 차저오겟지요 限업시 즐거운때인것갓기도하고 또한 쓸쓸한 느낌의 對象인것갓기도합니다。좀 일즉이 上京하시기를。여러가지 다못하은 이약이는 直語時로 미루옵고 끄트로 旅行中兼勝保健하시여서 豫期以上의 成果를 어드시기를 伏望하옵니다。그러나 大器 兄은 어느곳에서 여름을 보내실는지!

(續)



光線應用의『따이빙』練習

今番올림픽에서 水上競技에잇서 日本과 米國의 爭覇에 ……하라고 …… 勿論 科學의나라 獨逸이라 ……『따이빙』練習에 光線을應用하는 새로운 方法까지 考案되엇스니 寫眞에나타난것이 곳그것이다。

『따이버ㅣ』의 머리、억개 등 발꼬치等에 光線을붓처 『따이빙』의 始終을 寫眞的으로 露出시켜 乾板에 올리려는것이니 이것으로서 監督은 選手의 缺點을 明瞭하게 指示하고 匡正할수잇슬것이다。

科學

日光療法과 大氣療法 (一)

李富鉉

換言 物理學的 療法이라하야 電氣、熱氣 렌트겐 라디움 人工太陽燈 人工紫外線等等 實로 그種類를 枚擧하기가 困難할地境이다。電氣 熱氣 라디움 렌트겐等은 各其 獨特한 作用과 使命이잇스나 人工太陽光線이나 人工紫外線은 自然太陽光線의 應用이며 代用에 不過한것이다。人工太陽光線과 人工紫外線이 이가리 活用됨에 不拘하고 一分의 費用도 要치안는 日光療法이 別로 利用되지안는 理由는 무엇일가

『홀스크네히트』는 다음과 가튼 말을하엿다。우리 人間들은 日光과 新鮮한 空氣가 必要할때는 얼마든지 無報償으로 그것을 使用할수가잇다。그럼으로 그것을 利用하기를 게을이하고 …… 다고 펴도 平凡한말이나 高價한藥이면 無條件하고 珍重히역이고 低廉한 藥이면 어떠한 藥이든지 效果를 밋지안는 患者들이 만흔것을 生覺하면 氏의 이말을 名言이라하겟다。

果然 最近의 物理學的 療法特히 光線療法의 發達은 實로 驚嘆할만하며 그效果 亦是 新奇한것이 만타。그러나 經濟力이 貧弱한 우리社會는 過多한 費用을 要하는 此等光線療法의 惠澤을 蒙하는이가 極히 少數에 不過하다는 現狀이다。그럼으로 筆者는 日光療法과 大氣療法에 關한 體驗이 貧弱함을 不顧하고 信賴할만한 先輩諸氏들의 業績을 參照하야 日光療法과 大氣療法의 效能을 論하고 現代醫學의 恩澤의 圈外에 잇는 大衆의 이에對한 理解와 留意가 잇기를 바라는바이다。

日光及大氣療法의 歷史的文獻

日光療法은 文獻上에 明記되지는 오래지안호나 古代로부터日光이 疾病의 治療效能을 가젓슴을알어섯고 또實用되여왓다는것은 多數學者들의 見解가 一致되는 點이며 南洋이나『아프리카』의 未開人種들이 傷處나 腫處에 日光을 直射시기는 習慣이 잇슴을 보아 推想할수가 잇다 그러나 그年代라든지 方法이라든지는 何等記載가업고다

한 日光療法은 時代에 따라서 그治病效果에 對한 評價가 달러서 어느時代에는 至極히 偉重히역엿고 어느時代에는 全然돌아보지안흔것갓다고한다 現代科學的立場에서 比較的 系統的이며 理論的으로 日光療法과特히 大氣療法을 硏究한이는 瑞西의 自然療養家『아놀드·리클이』(Arnold Rikli)엿스니 그는 一千八百五十五年에 當時『오ㅣ스트리아』(現在는『유고스라비아』의『벨데쌰』湖畔에 自然療養院을 建設하고 硏究를 開始하야『大氣療法에 關하야』라는 論文으로 그硏究의 結果를 發表하엿다 이것이 大氣及 日光療法에 關한 最初의 文獻이다。『아놀드·리클이』는 當時湖畔에 南向한 小屋을 짓고 南面을 全然 開放케하고 그속에서 患者를이 晝間의 大部分을 裸體로 生活케하며 一日數次式 裸體로 林間을 散步케하는것이엿다。그리고 그結果가 極히 良好하다고 報告하엿스니 그治療方法은 後日의 日光療法에 比하면 極히 消極的이엿든것이다。

讀者社交室

▲貴社의發展을 祝福하오며奔走하신中 問議하옵기는 未安하오나 讀者社交室을通하여 下敎하시여주시면 感謝하옵겟나이다

一、明治三十八年陰六月十日은陽曆으로 大正元年陰七月十日同昭和八年同三月二十日

▲小生이高等學校에 優等으로 在學하옵다가 不得已한事情으로 中途休止하온十九歲男子입니다官廳 會社 商店 事務所等에서事務見習其他雜役으로 使用하여주시면 誠心으로 本삼아 熱心으로 執務하겟습니다

市內太平通一丁目九一　張氏方K生

▲事業家諸位에게 本人(廿九歲)은某官廳에勤務中이온데 隔日勤務가되야 休日에는無爲渡日입니다 內容的이나마 이餘暇를利用하야볼가합니다 幾百圓의保證金이라도내겟사오며 絶對的으로 責任지고일해드리겟습니다 外務는事하며 內務에는商業의資格은 잇습니다 有意하신事業家가계시면社交室을通하야下示하시면 拜訪하겟습니다

初夢生

▲讀者여러게 말슴드립니다 저는藝術을조화하는 孤獨한靑年입니다 兄弟들가진이들볼때 너무나 마음이압흐도록 외로워요 여와나갓치 鬱懷한兄姊妹를願하오니 左記로나 本社交室로通知(住所)하시면 孤人의天佑로生覺하겟습니다

大邱府外飛山洞一七七　盧一瑞

▲德山醫院朴兄圭氏께答함

貴下가무르신것은 如左합니다

一、醫生免許로는 滿洲開業不能함

二、乙種醫師採用試驗이有함 年一次

三、아직時局關係로 醫業에對한 問議할곳이업습니다

四、漢方醫術은 己之才能만잇다면行醫하여도 當局에서默認함

五、詳細는返信料添付하시면記呈

滿洲國圖們市　回春藥房

▲余는 東大門안에居住하는者인데 書道를講習하고십흔데 書道講習者를經營하시는분또는 此에恰似한業을 經營하시는분이계시옵거든 朝鮮日報社交室을通하야알리어주시스면感謝하겟습니다

▲現在普通學校 第六學年在學中인兒童에게 中等學校入學試驗準備를시기기爲하야家庭敎師한분을求하오니 志願者는左記住所로 來問하여주시기바랍니다

京城府昌信町六九七番地의一五號　韓小姐

▲生은 特히戲曲에 素質이有하와『한글』戲曲集을求하오니 或諸先生께서 讓渡하실분이나戲曲集販賣所를 아시는대下敎하야주소서

三千浦　一求冊者

▲오ㅣ過去에 同庭同窓學友가 그립소이다 只今으로부터 八年前인 昭和四年早春에 堅固한言約과 含淚盟誓로西海坊坊谷谷으로흐러저 제各生活戰線에 勇鬪하는諸兄이여 왜그리連絡이업습니까 또한우리를 가려처주신古川先生任은 그어나곳에계십니까 모도 筆者와가티 同庭에 集會하여 樂談과 過去事를 論情하는 一日을 設起하여주옵소서

順安公普校第七回卒業生(昭和四年三月分)諸友前

順安邑　朴昌瀛

▲獨學者諸位中 井上英語講義錄을讓渡하여주실분이 계시면 感謝하겟습니다 意向에계신분은 該社交室又는左記住所로 一報하여주옵기를 伏望이올시다

咸興大和町四丁目二三　金在善

▲PSS生이게答하노라 楊雲問=平壤府履上里二六의一六 金朝華=崇實專門學校內 高鳳民=日本大學藝術科內 朴南秀=平壤府上水口里一五 李泰敎=平壤府新里(僱貫지안라) 以上의 諸詩人의 住所를 알기에 적어보내니 必要하면 알아주십시오

(靑民生)

▲京城府孝悌町一 W生의게答 大正八年陰三月二十二日은 陽四月二十二日에該當합니다 무슨意味로 무르신지未詳하와 간단히答하오나 未盡한點이有하거든 다시下問하시요

▲娘娘座에서 座員募集한다는 말이돗기에 本人이入座希望하오나其에對하야 問答코저하오니 娘娘座住所를 讀者諸氏中에아시는분이게시거든下敎하야주시면感謝하겟습니다

咸北永川　一少女

新刊紹介

▲계자씨 八月號 칼빈主義四百年紀念號 發行所 平壤府新陽里六五의六 계자씨社 振替京城五二三二一番 定價五錢

▲前線 第三十號(月刊) 發行所 京城府鍾路町八八 天道敎靑年同盟本部 振替京城一六九四七番 定價一部三錢

▲아이생활 八月號 山水號 發行所 京城府鍾路二丁目九一 아이생활社 振替京城一五二五一番 定價十錢

▲朝鮮銀行統計月報 四月分 發行所 京城府南大門通三丁目一一〇 朝鮮銀行 定價五十錢

▲活泉 八九月合號 發行所 京城府竹添町 三丁目三五 東洋宣敎會聖潔敎會出版部 振替京城一一五五〇番 定價四十錢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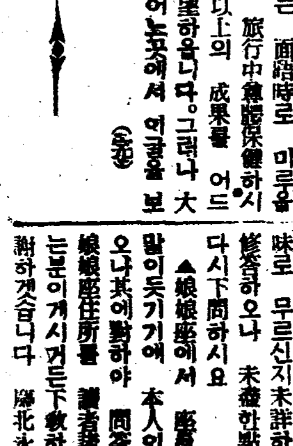
▲酒 第八卷第六號 發行所 朝鮮酒造協會 財務局稅務課分室內 朝鮮酒造協會 振替京城一八二一番 定價 五十九錢

專賣特許品

日ヤケ止め ニキビ・ソバカス シミ取りに お化粧下に

パパイン應用 藥用クレーム

アモンパパヤ
아 몬 파 파 야



昨年여름도 再昨年도 每年……特히 여름은 아몬파파야가 必要합니다

……何故로……

(1) 죽은깨、겨미、벗꺼름
을成生하는皮下의沈着色素를分解漂白、排泄하는作用이 從來品보다强하고合理的으로不安한副作用이업고安心하야아름답게될수잇는까닭입니다

(2)! 여드름、부름
을構成하는脂肪을分解排泄하는힘이强性으로頑固한여드름도內攻치안코皮膚에구멍을마늘지안코軟하게녹아서脂肪排泄管에서氣分조케빼서輕한여드름자리를업시합니다

(3)! 白粉化粧下
로서淡化粧의시원함과또는벗겨름을防止하는濃化粧의藥用크림으로지안케할에는 아몬파파야가 第一藥用이잇습니다

즐거운바다도山도
아몬파파야를 愛用하는분에限하야 氣品이노프든香氣와 爽快한맛의야一層즐거운맛이더함니다

見本進呈 이廣告를잘라서二錢切手를封入하야申込하시는분게 郵送

▲定價 一號 一圓三十錢 ▲二號 一圓八十錢

▲送料는 三個까지 府內二十錢 台灣 二十七錢 其他地方은四十二錢

▲販賣所 化粧品店·藥店·百貨店·各雜誌社代理部에잇다

東京市神田區松住町十一番地 株式會社 杉田商店 電話下谷(83)一六七〇番 振替東京七八四六一番

沿革

金海郡은 慶南東南端 洛東江의 下流 西方一帶의 地를 占하야 西는 昌原郡에 接하야 東北은 洛東江을 隔하야 東萊、梁山、密陽三郡에 接하고 南端만이 겨우 海에 面하엿다。

地勢는 北部에는 太白山脈이 잇서 金陵한 山脈이 連亘하고 郡의 南方은 沃野에 連續되어잇기때문에 邑을中心으로 一線을 劃하면 郡 北半部는 山脈이 起伏하야 平地가적고 南半部는 洛東江支流에 臨하야 圓滑하야 海에 臨한 平野를 이루웟다。面積 三十八方里餘로 邑이 그中央地點이 되고 東西가 七里요 南北은 六里이다。

本郡은 古駕洛의 一部로서 新羅儒理王十八年에 駕洛國의 始祖 金首露王이 降誕하사 建國하엿스니 國名을 駕洛, 加耶 又는 伽耶라고 稱하엿다。仇亥王에至하야 金官國이라고 改稱하고, 或은 金城金陵이라고도하엿다。新羅法興王時에 國을 邑으로하야 金官郡이라고 稱하고 文武王時에 金官小京이라 稱하다 하고 高麗太祖王時에 臨海縣이라 稱하고 成宗王時에 金州都護府에 昇하엿다가 顯宗王時에 防禦使를 置하고 元宗時에 金寧都護府에 昇하엿다가 忠烈王時에 金州牧使를 置하고 忠宣王時에 金海府라 稱하다。李朝太祖王時에 다시 都護府라 稱하엿다가 開國五百三年甲午에 改革하야 府를 고처 金海郡이라 稱하엿다。大正三年에 從來의 府郡廢合에 伴하야 從來의 二十三面을고처 十四面으로하엿다가 다시 十三面이되고 昭和六年 金海面을 邑으로 昇格시켜 一邑十二面으로하야 今日에 至하엿다。現在總戶數 二萬二千十六, 人口十二萬四千五百人의 大郡이다。

二千年前伽倻古都 而今엔産業中心地
産業은躍進、文化施設은微微
新興金海의現狀과期待

昔日에는 燦爛한 文化와 産業으로써 南朝鮮의 文化의 中心地가 되어던 伽倻國의 古都 金海도 이제는 閑寂한 農村으로서 녯날의 華麗한 追憶에잠길뿐 지금에는 이러타 할것이업다。그러나 이地方은 元來 洛東江下流三角地帶로서된 地域이니만치 一望無際한 洛東平野는 鳴浦江、平江、仙岩江의 국직한 三叉線을 비롯하야 金川江、七山江等의 幾多의 支流로 貫流한 洛東江水로 灌漑가 洽足함으로써 朝鮮서도 屈指의 穀倉을 이룬지라 녜나 지금에나 農業中心의 産業地로서의 價値와 名望을 일흔적은 업섯다。

다만 일직 科學에 發達되지못한 時代에는 洛東江의 氾濫을 防止할길이업서 數萬町步의 沃土는 每年의 洪水로 泥土化하야 不毛의 地와 가틀바업섯다가 近來 水利事業이 進行되고 河川整理工事에 依한 一川式改修가 完了됨을따라 不毛의 地도 沃土化하고 江下流의 蘆田開拓과아울러 날로 耕作地面積은 增加하야 이제는 참으로 無盡藏의 穀倉을 實現하게되어 大産業地帶로서 前途를 囑望하게되는 것은「新興金海」의 前途를 暗示하고잇다。

또 交通의 不便은 이地方發展上 큰 支障이 되고잇던바 河川整理工事와함께 洛東三叉江上에는 모다 架橋가 完成되어 從前에比하야 交通의 便利가 倍加하게되에따라 各方面의 産業은 俄然 活氣를띠고 새로운氣象으로써 飛躍的途程을 밟기 始作한것은 또한 今日의 金海에서 注目할 現象이다。

一方으로 文化方面에잇서서는 新文明이 輸入되는데따라 敎育熱이 勃興하고 新思潮를 輸入하야 新生活을 建設코저하는 運動이 衝天의勢도 일어나서 靑年運動、勞農運動、文盲退治運動等 文化運動은 燦然한 過去를 남겨섯다。今日의 金海가 잇게 되것이 이러한 모든生活運動、文化運動의 産物이오 結實이라고볼때에 決코 허되일이 아니엇스나 今日의 全面的退勢는 否認치못할일이다。今日에 各産業이 日復日躍進되고 一般社會가 多少 健實한步調를 보이게된것은 "新興金海"의 明日을約束하는 것이라고 할수잇스나 他面의 一面을본다면 結局生産的地方朝鮮人經濟는 날로貧弱해지고잇다기보다는 消費都市에 不過하며 一般文化運動退勢後 進取의 氣象과 向上의精神은 물러가고 世紀末的頽廢의 氣風이 靑年들의마음을 痲痺시키고잇는것도 否認치못할일이다。어찌 여긔서 힘과 마음과 財力을 合하야 學校를 建設하며 圖書館을 세우는等 文化的社會的施設에 努力할 社會奉仕的精神을 發見할수잇스랴 함으로 金海의 發展을 爲한다면 첫재는 學校를 設置하야 子弟를 더敎育시켜야할것이요 社會를運轉하는 中樞機關을 만들어서 靑年의 訓練과 指導에 當하여야 할것이니 文化 社會方面의참다운 進展이업시는 地方의 眞正한 發達과 "新興金海"의建設은 幻影에 不過할것이다。바야흐로 金海는 文化施設缺如의 陣痛을 안고 富豪有志諸氏의 蹶起를待望하고잇다。

◇駕洛國首露王陵

洛江下流大沃野는 南朝鮮의大穀倉
果樹、養鷄、養蠶等도躍進的發展
米穀生産年十五萬石

金海郡의 産業界는 바야흐로勃興途上에잇서서 各方面에 躍進的數字를 나타내고잇스나 朝鮮이 農業國이것과가티 아모래도

農業

을 中心으로한 農業郡임을 不免하다。이는 嶺南의 大動脈 洛東江이 만들은良田沃土의 大平野를 가진까닭이겟지만 全郡의 總戶數二萬二千二百十六戶中 農家戶數가 一萬七千七百十六戶로 그八割을 占한것으로서 足히 알수잇다。耕作地總面積 二十二萬三千一百三十段步에 一年間 米生産高 七萬三千石이오 大麥이 四萬六千石 豆類一萬五千石, 其他 雜穀物이 二萬三千石으로 合計 十五萬石에 達한다。園藝菜蔬類는 作付地 八千六百三十段步에 對한 一年間收穫이 一百二十六萬九百九十五貫으로 逐年增加하는 狀態이며 棉作도 作付地九○一、六町步에對한 年收穫高가 九六四、八五三斤이오 同價格이 八萬四千圓에 達한다。其他陸地棉、大麻、胡麻、莞等 特用作物도 相當한額에 達하야 農業地로서의 金海는 前途洋洋한바가잇다。또 洛東江三角洲로된 本郡大渚面은 地質이

果樹

栽培에는 適地로 할수업는데 數十年來果樹栽培에 努力한結果 梨、林檎、桃、柿、葡萄等을多量으로 産出하게되엇는데 特히 梨는品質이 良好하야 朝鮮各地는 勿論 日本內地로까지 移出되다。京城等地에서 從前에 俗稱龜浦梨라稱한 것은 金海大渚産이 誤傳된것이다。梨의年産高 廿二萬餘貫 그價格十萬圓을 突破한다。이제此 果物의 收穫高를 一覽하건대 如左하다。

梨 廿二萬三百六十一貫
葡萄 三萬七千九百六十六貫
林檎 五千二百三十八貫
桃 五千四百五十四貫
五萬六千四百六十貫

다음 本郡産業中 飛躍的數字를 보이고잇는것은

養鷄業

이다。現在鷄卵産額이 六萬圓以上이오 그重量이 三萬貫을 突破하고 또鷄卵生産數(養鷄數)가 또한 三萬을 넘어 刮目할 數字를 보이고잇슴은勿論이나 鷄卵의 販路가大部分 日本內地로 日本內地移出만五萬圓을 超過하는데 當地鷄卵의 呼評이 노파지는데따라 需要는 加速度的으로增大하야 至今到底히 그需要를 滿足시킬수업는現狀이므로 今後 朝鮮鷄卵名産地를 만들目標로 今後 一層그品質向上과그增殖에 積極的으로 努力하기爲하야 今般海外輸出目標로 事業費二萬圓으로 今年에 孵化場을 新設하기로 決定하고 目下着着進行中인데 아마 이것이 完成된後의 金海養鷄業은 驚異的數字를 나타내리라고 期待되고잇다。다음

養蠶

業은 飼育戶數六百戶年産繭一千餘石에 不過하므로 貧弱을不免하나 이地方의 氣候風土는 植桑養蠶에 最適하므로 郡農會에서는 이養蠶業을 積極的으로 奬勵하기爲하야 植桑에 補助하고 蠶業에對한 幾多의便宜를 供與하야 現在植桑總數가 七十萬本에 達하고잇서서 養蠶業의 前途도 至極히有望視되고잇다。

水産業

은 比較的貧弱하다고할수밧게업다。郡의 南端鳴旨面 菉山近海에서 石首魚、大刀魚、鯉、鮒、蟹等의 魚類가 産出되나 그年産額이 四萬圓程度에 不過하다。그러나 本郡의特殊한水産業으로서 鹽業을 들수가잇는데 이것이 水産業의首位를 占하고잇다。製鹽面積 十四萬九千六百坪에 年産額 二十萬圓을 突破하는 鹽産地는 郡內鳴旨面 菉山面의 兩面이다。또한 近來에 자못 旺盛해젓던 海苔는 鳴旨面과 東萊郡沙下面間의 洛東江下流地方에서 産出되는것으로 그品質이 從來의 好評이잇는 河東産을 凌駕한다고하야 그前途가 가장 囑望되던 바이며 年産額萬圓臺를 突破하엿더니 一川式工事以後 海苔業이 아주 不振하게되어 業者의 憂慮의 焦點이 되어잇다。끄트로 金海의 唯一한 特産으로

蘆席

을들수가잇는데 이는 洛東江沿岸一帶에 野生된 蘆草를利用하는 手工品이다。이蘆草의製品은 蘆席에 限하지안코 그用途는 實로 만허서 바구니 農笠、蘆簾等을 製作할수잇는데 金海는 元來 朝鮮屈指의 蘆草産地이니만큼 從來 斯業에 從事하는이가 만허고 産出額도 巨大하엿다。그러나 近年에는 蘆田開拓事業이 進行되어 거의 畓으로化한關係上 逐年 減少하는 傾向을 밟으나 지금에도 郡內小農家 一千數百戶가 副業或은 專業으로 이에 從事하야 蘆席만으로도 年産高 六十三萬八千八百枚로 年産額 十九萬七千八百四十餘圓에 達한다。水田開拓도 조치마는 이種類의 製品은 可謂地方農家의 必需品이니만치 某程度의 蘆田保護와 此種手工業의 奬勵도 이제는 農家의 要望이 되엇다。

이에伴하야 郡當局이 奬勵하고잇는

繩莚

叺의 製品은 技術上으로도 漸次精巧해지고 産出高도 逐年增加하야 現今엔 繩은 年産高 一百十四萬三千餘個 價格七萬九千五百三十二圓이오 莚은 八萬五千七百二十餘枚에 價格三千一百五十八圓 叺은 穀用鹽用을合하야 四十二萬二千九百八十七枚 價格 三萬六千二百五十三圓에 達하야 原料가 豊富한 地方이니만치 農家의 副業으로 크게 有望視되는것의 하나이다。

謹告

金海의 全貌를 紹介코저 이 紹介版을 刊行함에際하야 直接間接으로 援助해주신 人士諸氏에게 謝意를 올리며 同時에 紙面其他關係上 各方面을 遺憾이하야 充分히 紹介치못하고 爲先 이것만을 發行하오니 未盡한點은 다음機會로 밀고저하오니 不足한點을 諒察하여주심을 바라나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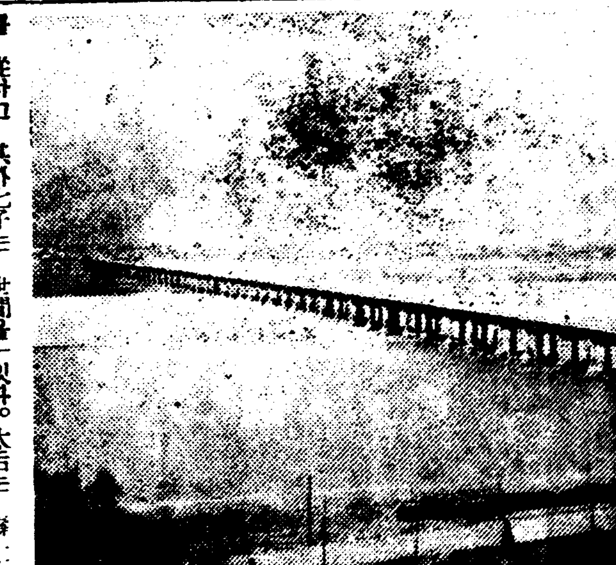
朝鮮日報金海支局 裵鍾睦

名勝古蹟巡禮

金海는二千年前 伽倻國의 首都이엇스니만치 金首露王陵、許后陵을 비롯하야 여러가지 伽倻當時의 古蹟이 尙存하엿스며 瑜伽岩、四忠壇等 壬辰亂當時의 遺物은 勿論 그外에도 萬丈臺、鳳凰臺等의 勝景은 이루 헤아릴수업는데 特히 打鼓峰月、南浦漁火、三叉風帆、竹島歸雲、燕子樓晩、涵虛亭夜雨、鳳凰臺夕照의 所謂 金陵八景이잇다。이제古蹟과 勝景의 主要한者를 紹介하면 如左하다。

金首露王陵=古駕洛國首露王의 陵所로서 邑西北郊外에 在하다。王은 距一千八百九十五年前에 龜旨峰에서 降誕하사 駕洛國을 創建하야 在位百五十八年에 崩去하섯다고 傳하는바 陵前의 崇善殿에는 王과 王妃의 位牌를 奉安하엿스며 그附近에는 神道碑及 文武官의 石像等이 排比하고 古色이 依然하다。境內에는 崇善殿에서 春秋祭典을 奉行한다。

許后陵=首露王后의 陵所로서 邑北方五町인 龜旨峰東側에 在하다。王妃는 阿踰陀國의 王女로서 姓은 許요 名은 黃玉이신데 駕洛王五年에 西國으로부터 石舟로 渡來하사 邑에서 約四里許에잇는 熊東面龍元里에 到泊하니 王이 親迎하사 王后로 迎接하고 普州太后라 稱하다。王子十人을 生育하야 長男은 駕洛二世王이되시고 次子는 母姓許를 從하고 其外七子는 世間을 떠나 入山成佛하엿다는 傳說이 잇다。太后는 壽一百五十七歲에 崩去하시다。


◇東洋一의……洛東橋

龜旨峰=首露王의 降誕地로 丘陵上에 紀念碑石이 잇다。駕洛의 九干이 此峰에서 金盒에 金色六卵이 든것을 發見하고 即時 我刀干家에 奉置하엿드니 六卵이 六童子로 化하야 不過十餘日에 身長이 九尺이오 容貌가 非凡하므로 모다 奔賀하다가 首出을 王으로推戴하고 首出의 意로 首露라 稱하고 金卵化身이므로 姓을 金氏라 稱하엿스니 即 金首露王이시다。次五人은 五伽耶에 分封하니 一、大伽倻(高靈) 二、小伽倻(固城) 三、碧珍伽倻(星州) 四、阿羅伽倻(咸安) 五、古寧伽倻(咸昌)이라고한다。

招仙臺=邑의 東二十五町(屈岩里)平野中에 岩石이 屹立하야 臺를 形成한곳이니 駕洛國二代 居登王이 七點山의仙人을 此臺에 招待하야 淸遊하엿다고傳한다。王의所座 石面에는 蓮花石及碁局이 尙存하고 石面에는大人影及巨人의 足跡이 잇다。

殉節岩=邑의中央(北內洞)에 在하니 宣祖壬辰亂에 府使 徐禮元은 北門으로逃走하고 宋賓、金得器、李大亨、柳湜의 四壯士는 城을 死守하엿스나 衆寡가 不利하므로 [illegible] 四壯士가 入城하야 [illegible] 殉節하엿다 이 岩上이므로 이 바위를 殉節岩이라고한다。

四忠壇=邑의 中央 盆城臺前에잇는데 宋賓外三人의忠節을 祀하기爲하야 設置하엿다 尙今 그碑石이 잇다。

盆城臺=邑의 中央(東上洞)에잇는 小高丘인데 昔日의 首露王宮이엇다고한다。臺上에 石碑를세워 駕洛古都宮墟라고 銘하엿다。

貝塚=邑의 西南府院洞(會峴里)에 잇는데 그長이 六十五間 幅十五間、長近二十尺이다。貝塚은 이로부터 西로 二町에 미첫는데 右折하야 鳳凰臺及北方丘陵의 西側을 北으로 達하기 十數町이다。이貝塚은 貨泉(前漢末 王莽攝位의天鳳元年 西紀一四年에 製作한것)及 石器土器、金屬器、骨角器等의 發掘品이 만흔데 西紀一世紀頃의 構成이라고 推察되고잇다。

窯跡=邑의 西北五町 小丘數個의 古窯가 現存하고、其他上東、下東、進禮等에 加羅時代 高麗及李朝의 窯跡이 아직잇는데 高麗及李朝의 金海磁器의 古窯跡이라고한다。

萬丈臺=邑東北 約五丁許에 高拔數千尺의 盆山 打鼓峰이 노피 솟앗는데 그山頂에는 高麗王時 朴葳가 築造한山城이 잇는바 이 山城中에 萬丈臺及 海恩寺가잇다。萬丈臺周圍에는 巖石이崢嶸하야 自然의 城壁을 이루워 臺上에서 眼前에 展開된 一望無際의 洛東平野와 鳴旨湖를 展望할수가 잇스며 晴明한때에는 對馬島를 遠望할수가잇다。

鳳凰臺=邑西南約五町에 잇는 距今六十六年前 李朝高宗辛未年에 府使 撲園 鄭顯奭이 命名한곳으로서 臺의 名稱에 依하야 加助山을 鳳鳴山、前山을 卵山이라稱하고 里名을 鳳谷이라고 命名한것은 中國金陵의景勝을 模倣한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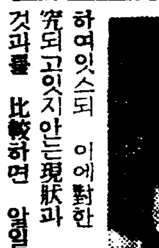
初等敎育은飢饉 私學界는蕭條落莫
未就學兒童數勿驚八千三百餘!
民間有志의蹶起를期待

金海地方의 敎育狀況은 如何한가? 現在金海郡內의 敎育機關은 金海公立農業學校一 金海農蠶修學校一 公立普通學校十三 私立普通學校一 尋常高等小學三 尋常小學五 簡易學校三 學術講習所三인데 各學校 現在生徒數는 七千二百十五名이다。이것을 數로서 볼때에 中等校가 二校이오 普通學校로 一面一校制가 完成되엇다고는하나 人口十二萬에 對한 比率로 보더라도 말못되는 比率이어니와 十三面의 未就學兒童數가 八千三百餘名이라면 寒心한 初等敎育에 嘆然치 안흘수업을것이다。

回顧컨대 金海는 敎育을爲하야 가장만흔 熱과 誠意를바친다고도할수잇는데 于今에 敎育機關의不足과 이에依한 入學難을 解消할對策이 講究되지안코잇은 現狀으로서는 過去의熱誠조차 疑心스럽다。過去에 私立合成學校를 基督敎會로부터 引繼하야 金海靑年會員의 月捐金으로 經營해가든때로부터 金海興學契、그後身인 金海敎育會成立까지의 苦鬪時代와、金海敎育會를 中心으로한 金海高普期成運動에 全郡의 勢力을 集中하던 時代의 熱誠과 努力은지금의 우리로서는 過去의 夢想하는格이다。金海高普建設運動이 經濟的恐慌으로從事에 廢한것은 또한 不得已한 일이라 할지라도 斯界의 大功勞者 故許熒氏逝去後의 金海民間敎育界는 蕭條落莫을 아니느길수업는 現狀이다。高普期成은 그만두고라도 私立學校로서의合成學校의 將來조차 樂觀을 不許한다는 現狀속에서 過去의爆發的意氣는 자취조차 차즐수업는 것이 아니라 敎育金海의 前途에 큰 期待를 가질수는업다。李康瓚、裵仁煥氏等를 中心으로한 農業學校의 昇格運動의 將來와 一般邑民의 金海邑第二公普 設置要望의 進展如何는 刮下의 注目되는 現狀이오、總督府의 初等敎育擴充實施도 多大한期待가 업는바아니나 如何든「敎育金海」는 爲한民間側의 勇猛的再出發이 업시는 敎育飢饉을 解消할方途를 發見키는 至難하다할것이다。

敎育問題와 斯界諸氏의意見

合成學校經營難 對策樹立이急務
財團法人合成學校理事長 裵仁煥氏談



金海私學界에 對해서는 實로 今昔之感을 未禁합니다。全郡民의 血汗의 結晶이라고해도 過言이아닌 合成學校가 經營難에 陷하여잇스되 이에對한 對策이 講究되고잇지안는現狀과 昔日의그것과를 比較하면 알일이외다。내가 同校財團의 理事長이라는 名目을 가젓습니다만 無責任한 말이나마 지금에 이러타할 抱負가 업습니다。勿論 合成學校를 引受하야 金海農校昇格을 期成하여 그時期와는 經濟的事情이 判異한 그보다도 一般社會의 熱誠이 식은데는 놀라지안흘수업습니다。第二公普로 만드는것도 조흔일이겟지오마는 金海郡民이 이唯一한 私學機關을 擁護維持하지못한다고해서는 實로 우리全體의 羞恥일것입니다。이에 對해서는 郡民全體가 熟考하여야할問題입니다마는 特히 篤志家의 蹶起와 新進有志諸氏의活動에 期待할수밧게 업습니다。學齡兒童數를 본다면 合成學校外에 第二公普가 設立되드라도 決코 만흔것이 아니니까요。農業學校 昇格運動도 말은 잇습니다마는 아직 이러타할 具體的進捗이 업습니다。左右間 우리는 "敎育金海"를爲하야 다시한번 大大的活動을 하여야한 必要에 切迫되고잇습니다。

篤志家出現期待
合成學校理事 朴錫權氏談

내야 元來 무슨 큰힘이 잇섯습니까만은 敎育에對한 熱意는 잇서서 故許熒先生生前에는 업는힘이나마 合하고 先生을도와 合成學校하나만이라도부여잡기爲하야 努力만은 악기지 안햇습니다。그러나 許熒先生이 故人된後에는 經濟界의 恐慌과 함께 同校의運命이 날로 衰退하게되엇스니 可歎할일입니다。이學校의 運命을 雙肩에 메고 奮鬪하실 篤志家의 出現을 實로 背苦待하야 마지안는同時에 어떠케하더라도 合成學校만은 살려야되겟다는 생각은 一時도 腦裡를 떠나지안습니다。

時急한要望은 幼稚園設置
幼稚園期成會會長 李康瓚氏談

"敎育金海"가 要求하는것이 아니겟지요 金海邑第二公普設立은 첫재의 要望이며 農校의 昇格은 둘재의 要望일것이며 幼稚園設置도 時急한 要望입니다。그러나 要望만으로는 成就할수업는것이요 結局은 不斷의 努力이 잇서야 實現될것이니 金海의敎育事情은 돈잇는이의 出現과 그努力을 待望하고 잇습니다。나로서도 敎育事業에 努力하고저하는 생각이야 엇게업습니까만는 아모리한들 力不足인지라 故許熒先生의 事業에 겨눌 大事業을 夢想할수 잇겟습니까? 現在金海有志諸氏와함께 金海幼稚園期成會를 組織하고 活動中입니다마는 아직 未成된 오늘에 이러타할것이 업스며 金海農校昇格運動도 亦是그러합니다。그러나 우리에게 敎育이나 文化的施設을 爲하야奉化獻身的努力을할 誠意와 熱誠이잇다면 終乃 우리의 目的을 達하고는 말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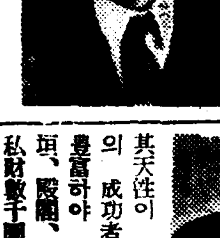
旣設學校의 施設完備가必要
菉山公普校長 盧在璇氏談

初等敎育機關이 얼마나 不足한것은 一面一校制가 完成되엇슴에도 不拘하고 街頭에、彷徨하는 學齡兒童이 金海郡內에 八千餘名이나된다는 數字로 넉넉히 알수잇을것입니다。그러나 機關의 數에 느리는것도 切實한 要望이겟지오만 旣設된學校의諸般施設를 完備하는것도 急務의 急務입니다。나는 赴任以來 學年延長、學級增加、簡易學校設置、校地擴張整理、登校道路設置、實習地購入等에 努力하야 이제 겨우 完成의 域에 이르게되엇습니다만, 郡內各學校에서 모다 이러한 施設擴充에 努力하여야비로소 敎育다운 敎育을 할수잇슬것입니다。

文盲退治가 第一急務
菉山面議員 曺長守氏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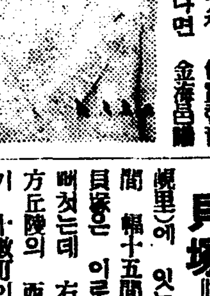
學校가 곳곳에 設置되어도無産兒童에겐 畵中之餠입니다。제가 제本生業으로 해오는無産兒童을 爲한 夜學을 十年間繼續經營한 經驗으로본다면 無産兒童을 爲한 文盲退治運動이急務中의 急務인줄 압니다。이것이 敎育機關이 不足한 우리社會의 必然的要求가 아닐가요? 有志靑年諸氏의 活動을 期待합니다。

開拓事業의先覺者
邑議員 裵基哲氏



荒蕪地開拓者로 有名한氏는 일즉 京城에 留學하고 여러가지 地方事業에 注力하다가 先覺한바잇서 邑北書山驛에 荒蕪地를 開拓하야 附近農民의 福利를 增進케한 功績이야말로 農業으로 生活하는 우리朝鮮사람의 活鑑者이다。또 氏는 現金海邑會議員、財團法人合成學校監事 金海金融組合監事 金海中央産業組合監事等 公職者로서 地方의 信望이 두터운 當年四十一歲의 中堅人物이다。

健實한實業家
邑議員 金命介氏



金海邑地方에서 가장 健實한靑年實業家를 찾는다면 金海邑議員 金命介氏를 들지안흘수업다。氏는 일즉 學業에 뜻을두어 京城에 留學하야 新文物을배웟다 그러나 그는 都會의 輕燥浮薄한氣風에 물들지안코 어데까지 健全하고 着實한 精神을가지고 農村에들어와 實踐躬行、몸소農事에 힘쓰며 勤儉貯蓄하야 治産과 農村啓發에 注力함으로 一般의 氏에對한 信望은 絶對的이다。그러므로 昭和十年 邑議選擧에 際하여서도 처음으로立候補하야 堂堂히 當選되엿다。氏야말로 農村의模範靑年이다。

長有의指導者
長有面議員 崔鉉翊氏

氏는 長有面世居家出生으로漢學에專攻하다가 面民의 推望에依하야 長有面長 郡農會通常議員 山林會評議員 畜産同業組合評議員等 公職을 歷任하고 現在 長有公普校學務委員、長有産業組合創立委員長 長有面協議員等 公職에잇스면서 敏活한手腕으로 奉仕的活動을 하고잇슴은 實로 敬歎不已하는바다。또 氏는 豊富한 仁慈心으로 窮春期에잇서서 戶稅等公課金을 納付치못하고 困境에處한 貧民을爲하야 三四次나 私財로써 代納하야왓슴으로 一般民의 稱頌이 藉藉하다。

首露王陵參奉
金性學氏

駕洛國首露王陵 崇善殿參奉 金性學氏는 元來 貧寒家出生으로 其天性이 勤勉仁厚한 赤手空拳의 成功者이다。氏는 敬祖心이 豊富하야 數百年 風磨雨蝕한陵垣、殿閣、修理及 石物新設等에 私財數千圓을 내엿슴으로 陵孫의 稱頌뿐만아니라 陵園은面目을新하엿다。陵垣內에 氏의頌德碑는 萬年不朽의 功績을 말하고잇다。

三十萬圓으로 遺跡保存計畫

以上의 古蹟은 可謂 無價之寶이나 年久世深하야 頹落된곳도 不少하며 버리고 돌보지안는곳도 잇서서 이것을 遺憾으로여여 古蹟保存에 屢次 計畫이 樹立되엿스나 아즉도 그것이 實行에 옴겨지지아니하엿다。그런데 昨年에 赴任한 郡守 金羲錫氏는 이것은 金海郡을爲하여 一大痛恨事라고 歷代郡守의 뒤를 밟어 다시 이遺蹟保存에 徹底한 計畫을樹立하고저 多年考究中이던바 過般 首露王遺蹟奉存會를 組織하고 그計畫에 對한 諸般立案에 着手하야 大綱 成案을 어덧다는데 이는 三十萬圓의 巨額으로 古蹟保存、施設의完備、保存에關한 今後의 維持費 名勝地公園化 計畫等을 進行하리라는데 이는 未曾有의 巨大한 計畫이니만큼 그實現性與否는 多少 疑問이나 이것이 實現되는날의 金海는 面目이 一新하게될것은 勿論 遺蹟保存에 對하야 萬全을 期할수잇슬것이라고 關係者에 多大한 關心과 期待로써 그實現을 待望中이다。

祝金海紹介版

金海邑內
百貨 化粧品 書籍 文房具
和信連鎖店
文化堂
電話三○番

金海邑內
和洋雜貨 諸紙文具
金載九商店
電話二五番

金海邑內
研美寫眞館
吳讚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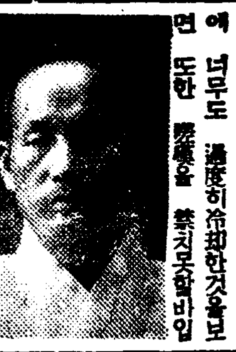
金海邑南門外
金海酒造株式會社
電話二一番
社長 裵上甲

慶南自動車株式會社
金海營業所
營業線路 金海―釜山間(二柳、七山、鳴旨、菉山經由) 金海―進永間 金海―水山間 金海―三浪津間 [illegible]

金海郵便所前
耳鼻咽喉科 外科、內科、小兒科
海星醫院
醫學士 金 [illegible]

文化施設과 社會方面의要望

私學振興과 文盲退治 盧百容氏 談



지금에 無償으로 閑日을 보내고잇는 나로서 敢히 社會를 云云하리까마는 내가 느끼는바는 啓蒙運動이나 文化運動에잇서서 一步앞서던 金海가 오늘에는 도로혀 落伍되고 한때에 그와가티 澎湃하엿던 敎育熱도 지금에 너무도 過度히 冷却한것을보면 또한 慨嘆을 禁치못할바입니다。이는 勿論 時勢의所致이오 一時의 反動現象이겟지오만 燦然한過去와 比較할때 落寞한 今日과는 너무도 隔世의 感을 늣깁니다。文化施設에對한 要望이 한둘이겟습니까마는 第一急務로 私學振興하야 敎育饑饉을 緩和시켜야할것이며 文盲退治運動에도 注力하여야 할것입니다。이것을爲한 施設이 時急한 要望일것입니다。

社會事業에對한 熱意가必要 裵德秀氏 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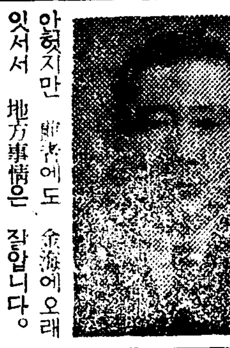
文化施設에對한 要望이야 한를이겟습니까? 그것은 일일이 말하지아니하더라도 周知의 事實이어니와 내가 말하고저하는것은 文化施設을 云云하는것보다도 먼저 文化事業에 對한 理解와 이에 對한 熱意가 第一 必要합니다。理解와 熱意가 만타면、社會의 要求도 卽時로 實現될것이니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第一 첫재 私的生活만을알고 公的生活을 모르며 社會事業이나 文化事業은 남의일처럼생각하는 頭腦부터 根本的으로 改造하여야 될것입니다。이것이 妥當한지는 몰라도 적어도 나는 그러케 느끼고잇습니다。

圖書館設立이 最大의急務 李圜氏 談

나는 무엇보담 社會敎育을爲한 圖書館設立이 必要한줄로 밋습니다。學校를 卒業한이의 繼續的硏究를爲해서는 勿論高等敎育의機會를엇지못한 一般靑年、또社會各方面이 要求하는 廣汎한 智識은 이社會的施設을 기다릴밧게업다。勿論、金海에는 前者 靑年會時代에 圖書館이 잇섯다 그것이 지금은 痕跡도업는것은 金海社會의 羞恥라할것이다 이는 不得已한事情에 基因된것도 잇섯다。이제는 좀더大規模의 이오 그基礎가튼튼하고 施設이完備된것이 設立되어야할것이다。

地方行政에對한 意見과抱負

堅實한氣風養成이 絶對로必要 郡守 金義鎔氏 談



金海에 赴任한지 오래되지는 아낫지만 前者에도 金海에오래잇서서 地方事情은 잘압니다。나로서는 金海가 都市가되는것을 願치안습니다。어대까지 農村으로서 各種産業에 힘쓰는것이 金海發展을爲하야 最善의 良策일줄압니다。내가 注力하는 農村啓發、副業獎勵도 特別히 이에 留意한것입니다。金海靑年에 對한 特別한要望은 輕薄에흐르지 말고좀더 堅實한 氣風을 養成햇스면 하는것입니다。

人民의生活安堵가 警察行政의要諦 署長 木村康郎氏 談

金海는 前者 相當히 어지러웟던 모양이나 지금은 相當히 나허젓습니다。나는 警察行政의 徹底를 期하기爲해서는 疲弊한 農山村民에게 生活安堵의 길을 열어주는데 잇다고 밋습니다。이러기爲해서는 自力更生과 心田開發의徹底를 圖하여야할것입니다。내가 郡內警察官駐在地를 巡廻하는것도 郡民의 生活狀을 觀察하야 署員과 協心同力해서 社會的秩序整然에 努力하고 郡民警護의 責에 任하고저하는것以外의 아모것도아닙니다。

農村啓發에 積極的으로努力 邑長 駒宮庄三郎氏 談

金海邑은 市區도 改正되고交通도 發達되고 電燈、水道가設置되어 小都市의 名目을具備하게 되엇습니다만은 亦是 金海는良田萬頃의 大沃野를 가진것만큼 農業等 各種産業에 注力하야 南朝鮮의 産業 中心地가되게하여야할것입니다 우리가 注力하는 農村振興運動도 이意味에서 더 有意義한것인줄 압니다。勿論 一方으로 道路의 鋪裝、下水道改修等을 實施하야 各種施設을 完備하여써 邑民生活의 利便을 圖하는同時에 그發達을促進시킬 計畫을 着着進行中입니다。

要望에應하고 地方發展도考慮 和信連鎖店 文化堂主 許湜氏 談

商業으로말하면 營利야營利지는 항상 營利에依한 商業成功과 地方發展과를 分離해서는안될것입니다。그러므로 첫재는郡民이要求하는 部門을 選擇하고 地方發展을 爲해서 不可缺의業을 選擇한다면 一擧에 兩得일것입니다。이는 商業自體에도有利한 條件이되며 地方發展에도貢獻하는바 적지안흘것입니다。내가 가장薄利의 書籍文房具를兼한것은 이러한點에 着眼하엿기때문입니다。

事業의成功과 實業界發展策

産業振興에 全力을傾注하라 稅務署長 金秉植氏 談

郡勢消長과 郡民의 經濟的實力은 곳 稅務行政에 反映되는것이니만큼 金海의 實勢를 우리만큼 眈眈히 알사람은 업습니다。同時에 金海의 各種産業이 發達되는데따라 稅務가 日新되고 稅務行政도 明朗해질것입니다。그러므로 나는 먼저 地方民의 福利增進을爲하야 各種産業의 獎勵에 努力하고잇습니다。現在 稅務署에서는 朝鮮酒의 品質의改良과 品質向上에 努力하는中인데 今年에는 酒造組合에 麴子製造를 創業하엿습니다。

個個産業의 기픈硏究가必要 金海酒造會社長 裵上甲氏 談

産業界振興策으로는 어떤産業一部門에 對하야 興味를 가진이가 이에對한 獨特한 기픈硏究를 싸아 獨步的經營方針을 取한다면 個人의 成功은 勿論 그産業의 發達에도 寄與하는바 만흘것입니다 그一例로써 酒造業을 들면 朝鮮酒改良에 對해서는 말로만은 主張하는이가 만호나 實行하는이는적습니다。나는 密陽酒造會社에 잇슬때 이에 着眼하야 多少 硏究한結果『嶺南』이란 藥酒를 만들엇는데 나종에는 嶺下의 第一이란 말까지듯게되엇습니다 努力해서는 안되는것은 업습니다。各産業에 잇서서 이런 精神으로 그事業에 專心하면 産業은 날로 振興될줄압니다。기 때문입니다。商業은勿論 其他實業에 從事하는이도 이點에 特히 留意하여야 할것입니다。

勤勉第一主義가 成功의秘訣 金載九氏 談

金海는 商業都市로서 有望한데는 아니니까 商界의 飛躍的發展은 바랄수업슬것입니다。運輸業의 發達에따라 貿易도 擴張되겟지만 大槪는 亦是 地方을 中心한 小規模의것입니다。商界成功에는 勤勉과 正直과信用이 根本的條件이 될것입니다。내가 오늘에 적은 이것이나마 꾸준히 해가는것도 亦是 이모土下에 活動해온 成果이올 압니다。勤勉第一主義로나가면 어떤 業에서든지 成功할것입니다。

熱과誠意와 活動力이必要! 邑議員 朴源逹氏 談

무릇 個人의 事業成功이나 地方實業界의 振興에는 무엇보담도 그事業에 對한 熱과 誠意와 끗까지 忍耐不拔의 精神으로 나아갈 活動力이 잇스면 特異한 雙肩으로 事業을 選擇하고、獨自의 方法으로 硏究해서 壯烈한 實業家로서 實業할것입니다 이러케한다면 成功은 不求自來할것이다。이精神이야말로 實業家의 誠意를 떠나서는 안될 重大한 要件입니다。

保健問題에對한 刀圭界意見

衛生施設擴充이 急務의急務 金海醫院長 李炳一氏 談

金海人口十二萬餘에 醫療機關의 不足을 말할것도 업슬것입니다。그러나 醫療機關이 數에잇서서 아모리 만하지더라도 購買力이 貧弱한 朝鮮農村사람들이 保健을爲한 醫療費를 負擔할 能力이 업는터이니 細窮民이 文化의 惠澤을 입지못하는것은 一般일것입니다 그보다도 國家的事業으로서의 衛生施設擴充이 가장 急務일것입니다。또 이미 醫療機關을 잡고잇는이들은 責任感으로써 患者를 取扱하고 個人營利보다는 獻身的으로 社會에 奉仕할覺悟가 잇서야할줄 압니다。

衛生에關한 智識普及의必要 平山齒科醫院 申鴻均氏 談

우리 醫師된者가 營利를目的으로 患者를 부르기爲해서 하는말슴이아니라 事實 地方農村住民의 一般이 衛生觀念이 너무도薄弱한데는 놀라지 안흘수업습니다。내專門으로서 보더라도 口腔이나 齒科에 對한 些少한病은 病으로생각지안코잇다가 及其也 危急한때에 醫師를차즈니 이래서야 어찌 保健問題를 云云하릿가 저는무엇보담 一般의 衛生에對한 智識을 普及向上시키는것이 急務인줄압니다。

社會現實의要求는 實費治療機關 海星醫院 金塡容氏 談

保健問題에對한 一般의 限知와 醫療機關의不足에 對해서는 다시 呶呶할 必要가 업습니다만 國民保健問題를 참으로 解決하려면 醫療機關의 國營이 먼저 主張되어야 할것입니다。이에對한 나의 具體的意見도업는바아닙니다 다만 이는 結論하고 지금에는 이것이 거의 實現可能性이 업스므로 大衆醫療機關으로서의 實費診療所를 만히 設立하는것이 切實한 現實的要求입니다。이와同時에 開業醫도 特別한 覺悟下에 可及的 醫療費의 輕減을 圖하야써 農村의 實情에 符合되게하여야 할것입니다。이런意味에서 朝鮮의 醫師는모다 社會奉仕的覺悟로써 事業에當하여야할줄 밋습니다。

各界重要人物

立志傳中의人物 副邑長 文呂逹氏

氏는 可謂 立志傳中에 列한 人物이라고 할수잇스니 그는 元來 貧寒한 家庭에 태어나서 學歷도 만히는 가지지못하엿슴에도 不拘하고 元來 天稟이 勤勉하고 頭腦가 明晳할뿐아니라 性品이 端雅方正하며 圓滿不偏하야 幼時로부터 萬人의 囑望이 集中되어잇섯다。그가 郡給仕로부터 副邑長까지 躍進한것을보면 그의 刻苦勉勵의 자취를 可히 엿볼수잇슬것이다。昭和十年五月에 現職에 榮進한以後로는 큰 抱負와 熱誠을 가지고 金海邑民의 利用厚生의 길을 열고저 非常한 努力을 傾注中이다。氏에 對한 邑民의 期待는 한層 크거니와 勤勉、實踐躬行의 模範은 靑年들의 信望을 集中하고잇다。

實踐躬行의 孔泰煥氏

氏는 體小短軀하나 非常한 活動家로서 頭腦가 明敏하며 性實이 溫厚剛直한 完全한 人格者이다。去年에 邑議員에 無難히 當選되엇스나 元來 性品이 名譽와 地位는 草芥視하고 農業에 本位를삼아 農村啓發의 第一線에 實踐躬行한 人物로서 農者는 天下之大本이란 標語下에서 不休의 勞心을하여 오는바 氏의 偉大한 實踐은 果然 稱讚하지안흘수업다한다。氏는 現在 京城 金星權氏의 育英會財團 金海農場을 管理하고잇다。

着實한藝術家 硏美寫眞館主 吳讃鍾氏

金海寫眞界에 王座를 占有한氏는 二十二歲의 靑年으로서 일즉 晉成高普를 卒業하고 特히 寫眞에 趣味가 기퍼 이技術을 專攻하고 돌아와 巨資를 들여 設備完全한硏美寫眞館을내엿다。氏는 寫眞技術의 向上코저組織한 金海兩光會의 指導者가되어 同業者의 硏究心을 向上시키고 잇는이니만큼 寫眞藝術에 對한 造詣가 기퍼 그前途는 囑望되고잇다。氏는 本社支局寫眞班으로活動中이다。

全金海의恩父 故許墢氏의功績

◇先生의人格을追慕함

先生은 이미 故人되지가 오래로되 吾人은 金海紹介版을 刊行함에 際하야 이즐래야 이즐수업는金海의 恩父이엇스므로 이제는 故人이로되 先生의 非凡한 人格과 偉大한 功績아페 무릅을 꾸리고 追仰하지안흘수업서 全金海와함께 다시한번 先生이남긴 巨大한 足跡을 살펴보기로한다。先生의 溫厚寬大하고도 사람을 壓倒하는 風采와 威嚴은非凡한 人格을 말하고 施設에 獻身的으로 努力하엿다。特히 敎育方面에 잇서서는 金海高普期成을 爲하야 第一着手로 五萬圓의 私財를 投하야 他에 範을 垂하고 同志와 아울러 熱烈한 活動을 繼續하엿다。不幸히 뜻을이루지못하고 合成學校가 지금에 私立普校로서의 存在박게 남지안햇스나 合成學校의 今日도實로先生의 기치신 遺跡인데 先生이 故人된뒤 다시 同校가悲運에 빠지게된것을 보매 先生을 追慕하는마음은 더욱 새롭다。先生은 모든方面에 잇서서金海의 慈父이오 恩人이엇다。先生이 而今에 生存하여 계섯드면 金海에 얼마나 더만흔文化施設을 하엿슬가하고 생각하며嗚呼라 寂寞寥條한 現狀과 對照하야 追悼의 눈물이 옷깃을 적신다。

屈指의優良水組 金海水利組合

郡內에는金海水利組合、大渚水利組合下東水利組合의 三者가잇는데 特히 그中에서도 金海水利組合은 設立되지가 오래되엇슬뿐아니라 優良水利組合으로全朝鮮에서도 屈指의 組合인것만큼 그槪要를 紹介코저한다。金海水利組合은 大正元年十一月에 設立하야 同五年五月에 竣功하엿는데 蒙利面積約二千町步인데 事業費二二三、九四四圓 洛東江의 氾濫으로 年年 泥土化하는 洛東平野의 防水 排水 灌漑를 目的으로한것이나 創立當時에는 一般地主의 沒理解로 여러가지 困難한 難關이잇섯스나 合理的經營에 積極的으로 努力하고 工事의 完成과 改良事業에 努力한結果 成績을 나타내어지금에는 第一回工事費는 償還이 完了되고 第二回工事費 約十一萬圓이잇슬뿐이라하며 一般步收穫高는 着手前九斗이던것이 着手後는 三、九九石으로 成績이 良好하다고한다。이리하야 不遠數年이면 工事費를全部償還하고 僅少한 費用만으로 組合을 運用할수잇게되리라고한다。金海水利組合으로하여곰 如斯한 成功을 거두게한 功勞者는 現組合長 金秉在氏이다。氏는 創立當時부터 組合長으로 就任하야今日까지 不眠不休의 活動을繼續하야 큰 功績을남기고 水利事業에 模範을 보이게되엇다。氏로말하면 實踐躬行하야 功을거둔 代表的人物이다。또現理事 勝永可敬氏도 勤勉誠實한 活動家로써 有名하다。

農村啓發을目標로한 中央産業組合

農村啓發을 目標삼고 組合員의 生産品 委託販賣와 消費品의 購入、肥料、農具等의 低利貸付等을 目的으로 組織한 金海中央産業組合은 昭和十年十月十四日에 設立許可를 어더 今年度에 事業을 開始하엿는데 이미 組合員이 一千八百名에 達하게되고 六月三十日現在의 三個月間取引狀況으로보면 肥料九五〇〇叺購入九五〇〇(販賣九四〇〇)、米麥二〇〇〇叺購入(販賣一五〇〇)、食鹽四〇〇叺購入(販賣全部)、農具類三〇〇叺購入(販賣二五〇)大麥一七〇〇叺購入(販賣一、六五〇)等이오 其他農席、繩、叺等도 八千餘圓의 取引이잇서서 벌서 借入金五萬五千圓 外上賣가 五萬三千圓에 達하야 그成績은 매우 良好하다고한다。現在 郡廳北便에 評價二萬五千餘圓으로事務室、倉庫等을 新築中인데 新築落成後에는 事業의 擴張을 徹底的으로 宣傳할터이라한다。理事 崔瓚浩氏는 精誠과手腕이 具全한 活動家이니 만치 事業의 飛躍的發展은 勿論 一般組合員은 그公正無私한 運用에 依하야 組合員의 福利增進에 多大한期待를 가지고잇다。

民間水利團體의典型 生林防水組合

民間水利事業團體의 典型으로서 金海郡生林面에잇는 生林防水組合을 紹介코저한다。生林面一帶도 洛東江流域으로 年年洪水에 荒蕪地化하야 그水利事業이 提唱되지는 오래엿스나 實現되지못하엿는데 同面有志諸氏는 防水契라는것을 組織하야 土地改良事業令에依한 民間水利團體를 만들고저하엿스나 不如意하게되어 다시 水利組合設置運動에 進出하엿다。그러나 이도失敗에 歸하얏스므로 드듸어河川令에依한 水利團體 生林防水組合을 組織하야 昭和九年부터 工事에着手하야 昭和十年에 完成되엇다。現組合長 嚴貫峻、副組合長 嚴在鎬、評議員 許[illegible] 鄭永泰、理事 [illegible]氏는 그功勞者이다。蒙利面積 三百町步 工事費十萬圓、蒙利地主 九十四名、小作人數 四百名인데 이防水組合의 完成으로 可謂生林의 生命線을確保하게되엇다고한다。

金海酒造組合 麴子製造創業

金海酒造組合에서는 麴子製造事業을 經營하게되야 今年六月一日附로 麴子製造免許와 同時에 工場建設에 着手하야 數日內竣工될터이며 今月末頃부터 麴子製造에 着手할豫定인바 目下原料小麥購入에活動中이라고한다。

金海文化運動略史

甲辰開化爾來三十有餘年間

自强會及 大韓協會時代

甲申政變이 守舊黨의 勝利로 開化黨이 失敗하엿고 甲午乙未年間에 獨立協會와 靑年會가興起하엿다가 沒落된以後에 朝鮮의 革新運動이 아주根絶狀態에 瀕하고잇섯다。一九〇四年에 日露戰爭이 終幕을 告하매 朝鮮政界에 大波紋을 이르켜 政治運動이 다시 擡頭되어 自强會大韓協會를 組織하고 政治思想을 鼓吹하엿다。金海에서도 그支部를 設置하고 活動하엿는데 그中心人物은 이미故人이된 曺敗承、裵東周 朴廷秀諸氏와裵仁煥氏外諸先輩이엇다。

私立學校興旺時代

新思潮의 輸入과 政治運動의 推移에 伴하야 敎育熱이 旺盛하야 各地에서 洞有財産及 個人의寄附金을 醵聚하야 私立學校를 創立하엿는데 金海에서도 唯一學校、涵英學校(合成學校前身)同明學校、生林勸陽義塾、華明學校、進永中和學校、菉山鹿鳴學校、活川日新學校、鳴旨東鳴學校等이 設立되엇다。

農務夜學時代

故朴廷秀는 有名한 秀才로距今 四十年前에 東京에 留學한 理想이 超越한이로 時光을 觀察하고 各洞里에 農務會를 組織하고 그會事業으로 農民은 一致協力하야 産業에 勤務하며 勤勞貯蓄하고 夜學校를 設立하야 農民子弟를 敎育시켯다。이리하야 金海邑은 勿論 外面까지도 洞里마다 農務會를 組織하고 夜學校를 設立하야 農業을 獎勵하며 敎育을 振興시키고 演說會를 開하야 精神作興에 努力하엿다。

靑年俱樂部時代

庚戌以後에는 沈滯時代가 얼마동안 繼續되엇다。敎育機關은 公立學校와 數處私立校가 잇섯스나 財團困難과 人心의 腐敗로私立校는 僅僅 그形態를 保全하야 若存若無의 狀態이엇고 또한新文化의 惠澤을 입을 다른 方途도업섯다。이때에는 所謂 新思想가진 靑年들이 耶蘇敎를依托하야 그理想實現에 活動하엿다。故裵東奭君은 耶蘇敎靑年으로 思想이 健全하고 學識이俱備한 人物이라 同志를모아 運動俱樂部를 組織하고 讀書에힘쓰는一方 夜學을 設立하야 文化普及에 努力하고 時時로 名士를 招聘하야 講演會를 開催하엿다。그後 數年을지나 此를 靑年俱樂部이라 改稱하고 智育、體育、貯蓄의 三部를두어 夜學增進、金錢貯蓄等에 注力하엿다。

靑年會時代

金海靑年會는 靑年俱樂部의後身이다。己未以後 社會情勢의變化로 俱樂部은 有耶無耶에 잇섯는데 一九二〇年 朝鮮에 言論集會등이 許可됨을따라 俱樂部會員의 發起로 即席에서 金海靑年會라 改稱하고 會務를 刷新하야 體育과 智育普及에 努力하게되엇다。靑年會時代事業은이루 記錄키 어렵거니와 첫재當時에는 敎育熱이 澎湃하야 志學兒童이 無數하엿스나 收容할곳이업섯는데、私立合成學校는 耶蘇敎에서 經營하엿스나 財政困難으로 廢校의悲運에 陷하여잇섯스므로 靑年會에서 此를 引受하야 會員의 月捐金으로 三百餘名學生을 收容하는同時에 中等學校昇格目的으로 金海高普期成會를 組織하고 基本金募集에 着手하엿섯다。또女子夜學을 設立하야 會員의義務로 擔任敎授하야 數百名의 卒業生을 내엇다。其他 農民救濟(旱災及洛東江洪水는 그一例)一般民衆運動、文化事業等에 專力하엿다、他面 靑年聯合會及靑年總同盟에 加入하야 全面的으로 活動하엿다、當時의 中心人物은 裵德秀 裵鍾哲 印東哲 李圜 崔瑆浩等諸氏이엇다。

興學契及 敎育會時代

私立合成學校를 靑年會에서引受經營하게되자 地方有志들은이事業에 感銘하야 故許墢、朴錫哲、裵仁煥、其他諸氏는 中心으로 興學契를 組織하고 契員을 募集하며 合成學校를 經營하는 一方 財團을設立하야 將來高普校를 創設할方針으로 邁進하엿다。그後 金海敎育會라 改稱하고 積極的活動을하엿스나 噫라 物故黑疹에 幾多事業이 모다夢想에 歸하고말엇다。

思想運動及 農民運動時代

그後 時勢變遷에따라 社會主義的思潮가 輸入됨에따라 金海에서도 各種 思想運動、農民運動의 團體가 생겻다。그中에서 第四會라는 團體가 말하자면 指導權을쥐고 靑年、少年、農民、衡平運動과、그後의 新幹會、槿友會等을 指導하며 靑少年敎養과 全朝鮮的運動에 合流하엿섯다。農民運動團體로서는 金海農民聯盟이 中央에잇고 北內農民團外 十餘農民團의 細胞團體가 잇섯는데 同聯盟은 勞働夜學을 設立하야 無産兒童을 敎育하엿고 小作爭議等을 指導하야 數百件을 處理하엿섯다。그中 重大한事件은 駕洛角一會社 小作爭議와 大渚面 大邱李章雨氏土地小作爭議 進永迫間農場爭議等이 가장 큰것이다。이때의 中心人物은 安光泉、盧百容、裵鍾哲、李圜等諸氏이엇다。

衡平運動時代

金海의 衡平運動은 一九二三年八月에 衡平社金海支社를 設立하엿는데 그翌年夏에 社會各團體代表가 出席하엿기때문에 이에反對하는 一部에서 農民을宣動하고 流言蜚語가 이에加하야 農民數千名이大擧 靑年會館을襲擊하고 또 衡平社員部落을 襲擊하야 家屋什器를破壞하고 惹起한大事件이突發하야 金海는뒤끌키始作하고 市民은 大不安에싸엿섯는데、警察官大擧出動、檢事出動、擾亂者檢擧로 一段落을짓고 말엇스며그後 그것이 모다誤解、流言蜚語에基因한것이 判明되엇다。그러나金海衡平運動은 이事件으로 도로혀 急速한 進展을 보이게된것은 事實이다。(以下略)

◇唯一한駕洛古刹長遊庵

長遊庵은 駕洛國首露王妃의 親弟인 駕洛國師 許長遊和尙이 初創한古刹이나 不幸히 壬辰兵火에 燒失되고 古物古蹟이 一時灰燼에 歸하야 中年에 再建하엿다。그러나 法堂만은 옛자최를 維持하고잇스며 佛母山(或은長遊山)은 嶺南의 名山이오 舊駕洛國의 巨嶽이며 長遊庵의 風光은 春夏秋冬을 通하야 佳絶한바잇서 常時 探勝客이不絶한다。

新駕洛建設者 金成鶴氏

駕洛面地方의 創造的役割을해온 氏는 現在 面協議員을 爲始하야 駕洛消防組副組頭、駕洛普校興務委員等等 各界要路機關에直接間接으로 責任을지고 民間의 利益을 爲하야 惡戰苦鬪할뿐아니라 同情心이 豊富한氏는 貧民救濟와 各社會事業에 만흔私財를投하여다 昭和八年水害時에 數萬의罹災民을 爲하야 最善의 努力을 다하엿고 敎育機關擴充을 爲하야 學年延長期成會를組織하고 千辛萬苦의 努力을하야 實現에 成功하고 現在에도 當地無産兒童의 敎育機關擴充을目하고잇서 新案期成會를組織하고 同會會長이되여 活動中이라고한다。

赤手로成功한 駕洛面議員 李增守氏

駕洛面議員 李增守氏는 貧家出生으로 正正한 學業을 닥지못할境遇에 處하얏스나 天性이 勤勉함으로 晝耕夜讀을일삼아 今日에잇서서는 駕洛面內의 屈指하는 信用家이며 自力更生時代의 模範人物인同時에 赤手空拳의 成功者로 有名하다。

多角的活動家 邑議員 趙鍾奎氏

現在 京城育英會財團의 金海農場을 管理하는 氏는 心性이聰明하고 鍾實 圓滿無垢한 人士로서그 責任을 勵行하는대는 가장適任者이즐 自他가共認하는바이다。氏는 三十八歲의 人物로서 일즉히 漢學에 한갓 修業이잇을뿐아니라 新時代의 常識도 兼備하고 한번 뜻을 決定한后에는 어떠한 艱難이 닥처오더라도 不屈한다。氏의本業은 農業이나 多角的活動家로서 金海邑議員及金海金融組合評議員의 要職에 잇는바 金海社會에 큰貢獻이잇을것을 期待한다。

靑年實業家 金炳錫氏

氏는 元來 金海邑에서 멀지아니한 上東面에 累代世居하는名門出生으로 일즉히 關西中學을 卒業、現在釜山佐川町에 寄籍하여잇는데 氏는 智德이 兼全한 二十九歲의 靑年으로 農村振興과 土地開拓事業에 注力中인바 天性이 仁慈하야 金海各邑面에 散在한 數百名의 小作人에 對해서도 小作料를 特別히 低廉케하야 이르는곳마다 善德地主라 稱頌하며 氏의遠大한 希望은 致富한後 社會事業을 成就하는데 잇다고한다。

士林界德望家 許燉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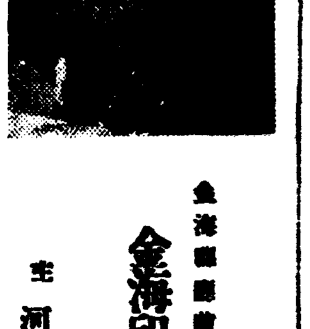
金海文廟直員 許燉氏는 元來駕洛王의 後孫으로 金海大家이다。天性이 溫厚하고 漢學에 通하야 德이 豊富한 長者로 金海公普校學務委員 文廟掌議를 歷任하고 現在直員으로 士林界에 名望이 두러운 德望家이다。

大渚의中心人物 金龍采氏

大渚面의 老練한 中心人物인 氏는 漢學者로서 일즉이 韓國時代의 面長及 公職任收員等을 歷任하고 其後 大渚水利組合創立委員을 지내고 昭和八九年에 三南이 水國化한 未曾有의 大洪水時에 三南水害救濟班長으로 白髮을 날리면서 活動하는 氣焰은 實로 壯年도 當치못할만한 勢力이엇다。또 氏는 晩年의 事業으로 先祖駕洛王遺蹟保存會를 創立하야 同會委員으로 永久事業費五千圓을 立替하야 諸般準備에 着手進行中이다。現今은 酒造場을 經營하며 金海酒造組合評議員으로서 面內에 人格잇는 德望者로 當年六十四才의 老長者이다。

祝 金海紹介版

慶南金海邑內 三井物産株式會社金海農場 裵東化 裵仁煥



金海邑前 金海印刷所 電話一九番 主 河奉吉

長有市場通 長有和信連鎖店 主 許水泳

金海金融組合職員一同

長有金融組合職員一同

駕洛面長 裵鍾澤

進禮面長 宋世允

長有面長 徐度坤

菉山面長 李雨英

上東面長 曺永煥

金海邑北內洞 共立印刷所 主 申孝弼 電話二〇番

長有酒造場 李承秀

駕洛面竹林里 朝鮮酒造場 宮本崇一

駕洛面鳳林里 金融組合評議員 金鍊成

駕洛面竹林里 角一會社 市原助治

駕洛面鳳林里 醫生 金斗沂

大渚面大地里 有志 高光烈

駕洛面協議員 文渭悅

駕洛面大沙里 道議員 植田義夫

生林面安養里 防水組合理事 曺重煥

連載野談

布袋記 (八二)

申鼎言 作 / 金熊超 畵

복을짓는그칼 (廿六)

대무신왕께서 바라고 바라든 락랑을 할복 바드매 그런 신귀한일이 업섯다.

그러나 락랑이 공주의 목을 들고 서문밧게 나서서 항복하든 그광경은 차마 눈으로 볼수가 업섯다.

그리고 호동왕자의 가련한말을 듯지안흔것을 크게 후회하섯다.

호동왕자는 락랑국을 항복바든것이 영광으로 생각되지 아니하고 도리혀 죄악가티 생각되얏다.

『허허。 락랑공주!』 그는 사랑도 일코。 나라도 일코。 끄트큰는 그 몸까지도 일흘 불상한 공주。 공주로하여금 일어케 불상한 귀신이되게한것은 일흠의 칭』

하며 호동왕자는 공주로 하야금 머리업는 귀신이 되게한것을 아무리 이질내야 이즐수가 업섯다.

그런데 며더구나 지극히 흉악한 모함에 빠졋슴이리오。

본시 호동왕자는 대무신왕의 둘재 왕비께서 탄생하신 왕자이엿다。

그런데 그 첫재 왕비 께서 항상 호동왕자를 업새버리려는 흉계를 여러가지로 생각하다가 내종에는 호동왕자가 불칙한행동을 꾀한다는 더리운 말까지 지어 대무신왕께 고하얏다。

『오오。 호동아기가 왕비의 소생이 아니라고 이런 망칙하고도 더리운 말로 죽이려하시오。』

하시고 대무신왕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서 왕비가 그런 말을 할적마다 책망한것이 한두번이 아니엇다。

이때 호동왕자는 락랑공주를 죽게한후 천하만사가 하나도 귀한것이 업거늘 허물며 풍애라도 망쳐하고도 더러운 허물을 뒤집어 쓰게되니 과연 천지신명이 모두 미워하는것 가티만 생가되엿다。

『허허。 나의 운수! 긔구하기도 지극히 긔구하거다。 당의금시외같은거리 귀하 배이는 공을 변명하기는 어려운일이아니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중전마마의 악함이 나타나게 될것。내어이 그짓을 차마할수잇소?。』

하고 호동왕자는 뜨거운 눈물을 흘니엿다。

『허허。 과연 어지시고 효성이 가륵한 말슴。 그러나 왕자의 깨끗한것은 긔어코 알려야만 할일。 왕자께서 잠잠히 게시면 우리 고구려국민이 모두 일어 나서라도。』

하며 여러조신들은 호동왕자의 루명을 벗기기 위하야 나라사람들을 충동식혀 일어날것을말하얏다。

『아니오。 아니오。 내가 올코저하면 반드시 중전마마께서글러지실것。 그뿐아니라 그로인해 아바마마의 근심까지 생기시게될것。 부모의 평안을 위하야 내어이 내일을 변명하리?。 변명할 도리는 따로잇지。』

하고 호동왕자는 여러조신들을 피하야 딴곳으로 피신하얏다。

때는 백설이 천지에 가득히 차힌 겨울!。

호동왕자는 그길로 가슴에비수를 품고 머릴뒤뜰로 달려나갓다。

그리고 시조 동명성왕 신사를 향하야 배번 절하고 다음주를 내어말도씨 머리업는귀신을 맨든것도 크나큰 죄악이어늘 이 어인말가。 유해의말도 볼수가잇는 유해의말。 이것은 분명히 락랑공주의몸상한데이 나를 벌주는것。』

하며 호동왕자는 갈수록 살어잇을 생각이 점점 업어간다。

이때 여러 조신들은 처재왕비의 때리운 흉계를 몹시나원망하며 호동왕자를 향하야

『왕자시여!。 왕자의 수절가티 맑고도 깨끗한것은 고구려사람뿐 아니라 천지신명께서도 모두 증지하실것。 빨리 상감마마께 변명하시면 넉넉히 그른명을 씻을수잇는것을 말슴하옵。』

하고 한시 밧비 그루명을 벗기를 강청하얏다。

『아니오 아니오 나의 올흔것에는 락랑공주 무덤을 향하야

『공주여!。 공주여!。 이제 잇는홍도 별서 작재하얏이 오랏엿거니。 이제는 천지신명이재촉하사 공주의 뒤를 따르노니。 가는소이다 가는소이다。 이되마를 세상을 버리니 이몸이 저옥이 가벼소이다。』

하고 그비수를 꺼내어 입에물고 엎어진가 흔두박질을 거듭첫다。

슬프다。 천고의 명풋게 흘드린 호동! 이

이것은 호동왕자가 하마놀세상을 버리고 멀니멀니 떠나간 천후의 자칙。

엄마뒤에 여러 궁녀들과 대관들의 슬픈 우름소리가 궁중뒤뜰로부터 눈이 가득차인 고구려천지를 흔들엇다。(이편끗)

☆曆☆

八月六日(木) 陰乙亥六月小(十九日) 庚申·木·奎·除

●立秋八日(陰廿一日)
●大暑二十三日(陰初五日)
●祭祀에宜함

五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이야기『兒童音樂教育에對하야』(二) 趙光鎬
◇同七時 復習時間『算術』 李俊興
◇同八時 衛生講演『夏期衛生』 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根
◇同八時三〇分 歌曲 一、界面二數 二、平擧 三、蔚擧 四、弄 金蕉紅 黃金鎭 洋琴 金相淳 大笒 金永根 杖鼓 金一字
◇同九時 新舊劇 〃名妓黃眞伊〃 一柳影 脚色 全四幕五場中 第一幕一、二場
—配役—
黃眞伊……池京順
玄琴甲……車紅女
女婢……金鮮英
상여꾼甲……金影水
〃 乙……李軒
〃 丙……太乙民
초라각……柳玄
◇同九時四〇分 報念外 一、報念 二、六字배이 三、흥타령 金素姬 趙素玉
—東洋劇場으로부터中繼—

第一放送

◇午後六時(大) 이야기와劇 千原鮑 大阪科學劇協會
◇同六時二五分(仙) 趣味講演 富田廣重
◇同七時三〇分(東) 講演
◇同八時(小) 凉味通信 玄海灘六 蓮島納凉船에서中繼
◇同八時三〇分(東) 一中節 都一中 梅
◇同九時(大) 連續物語

六日(木曜)

◇自午前六時三十分 至同七時 올림픽大會放送 夏川靜江 〃棒高跳決勝、二百米決勝、百十米高障碍豫選〃 (레코-드세實感)(第一放送에依함)
◇午後零時五分 小春香歌外 一、小春香歌 二、平壤歌 三、달거리 郭山月 郭明月
◇同一時(東) 野球試合實況 明治神宮外苑球場으로부터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
◇同六時三〇分 獨唱 趙錦子
◇同七時 復習時間『國語』 作奏DK管絃團
◇同八時 講演『딸과親하시다』 梨專教授 金浩稙
◇同八時三〇分(東) 獨唱과管絃 獨唱 三浦環 管絃樂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五分 라디오、코메듸『自働車病』一景—金雲汀作— 貞洞俱樂部
◇同九時四〇分 漫談『旅行風景』 黃材景

第一放送

◇午前一〇時三〇分 常識講座 松崎嘉雄
◇午後零時〇五分(東) 和洋合奏
◇同六時(名) 日本史 村岡花子
◇同六時二五分(東) 趣味講座
◇同七時三〇分 心田開發講演 阿知和安彦
◇同八時(東) 謠曲 觀世左近 島澤野次外
◇同八時三〇分(東) 獨唱과管 獨唱 三浦環 日本放送交響樂團
◇同八時五五分(大) 義太夫 竹本南部太夫外

七日(金曜)

◇午前六時三〇分(自) ◇同七時(至) 第十一回 올림픽大會放送 (레코-드付實感) 〃三段跳決勝 百十米高障碍決勝 千五百米決勝〃(第一放送에依함)
◇午後零時〇五分(名) 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指揮 早川彌左衛門
◇同一時(東) 野球試合實況 第十回都市對抗野球大會 —明治神宮外苑球場—
◇同六時三〇分 童話劇 〃꿈나라의종〃三景
—配役—
竹 鄕……朴容俊
꿈나라의女王……李健榮
少 女 一……李秉玉
〃 二……李芝雲
〃 三……安大灝
장 님……金信榮
거 지……李信相
三 寫……朴甲緒
仙 女……金永信
孔德勉勵少年會
指揮 金容德
解說 金貫國
效果 金觀俊
伴奏 鄭貞淑
◇同七時 復習時間 〃算術〃 李俊興
◇同八時 講演 〃康樂과犯罪〃 朱鍾勳
◇同八時三〇分 音律『靈山會像』 玄琴 李彥植 洋琴 李承煥 奚琴 池龍九 短簫 洪斗璣 細笛 趙載爾 杖鼓 李章夏
◇同九時 楚漢歌外 一、楚漢歌 二、夢金浦打鈴 三、蜜邊歌 四、山念佛 五、개성난봉가 六、병신난봉가 金玉仙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映畵物語 徐相弼
◇同一〇時四五分 第十一回 올림픽大會實況(第一放送)

第一放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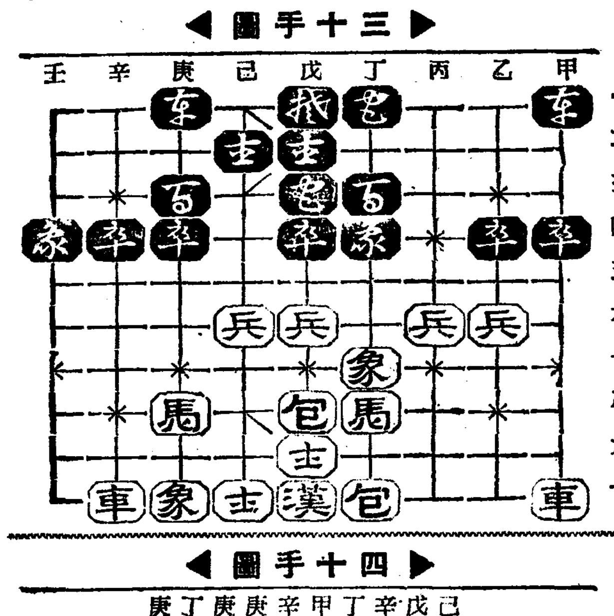
◇午前一〇時三〇分 家庭講座 弘田龍太郎
◇午後〇時〇五分 管絃樂 名古屋交響樂團
◇午後六時(大) 이야기 오하나시그라브
◇同六時二五分(前) 趣味講座 中曾根都太郎
◇午後七時三〇分(東) 講演 神川彥松
◇同八時(東) 歌謠曲 勝太郎
◇同八時五五分(東) 常磐津 常磐津松尾太夫外
◇同一〇時四五分(東) 第十一回 올림픽大會放送 〃國內放送을 림픽응원가〃(레코-드)
◇同一一時(伯林) 올림픽大會實況

將棋名手對局譜 (四)

本社主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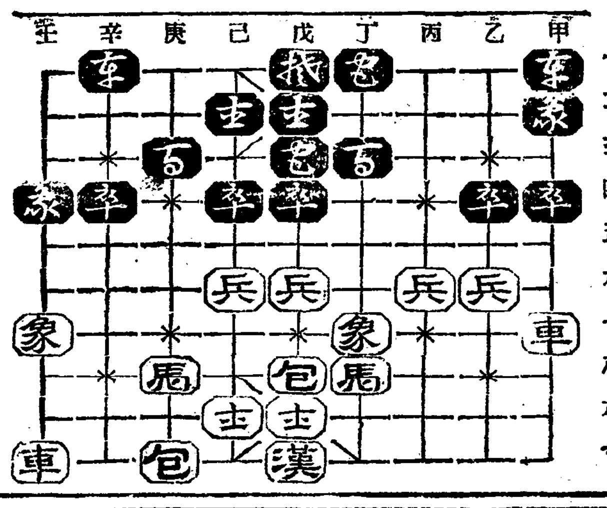
漢兵先手 李在鳳 對 李英鎬

◀第三十手圖▶



◀第四十手圖▶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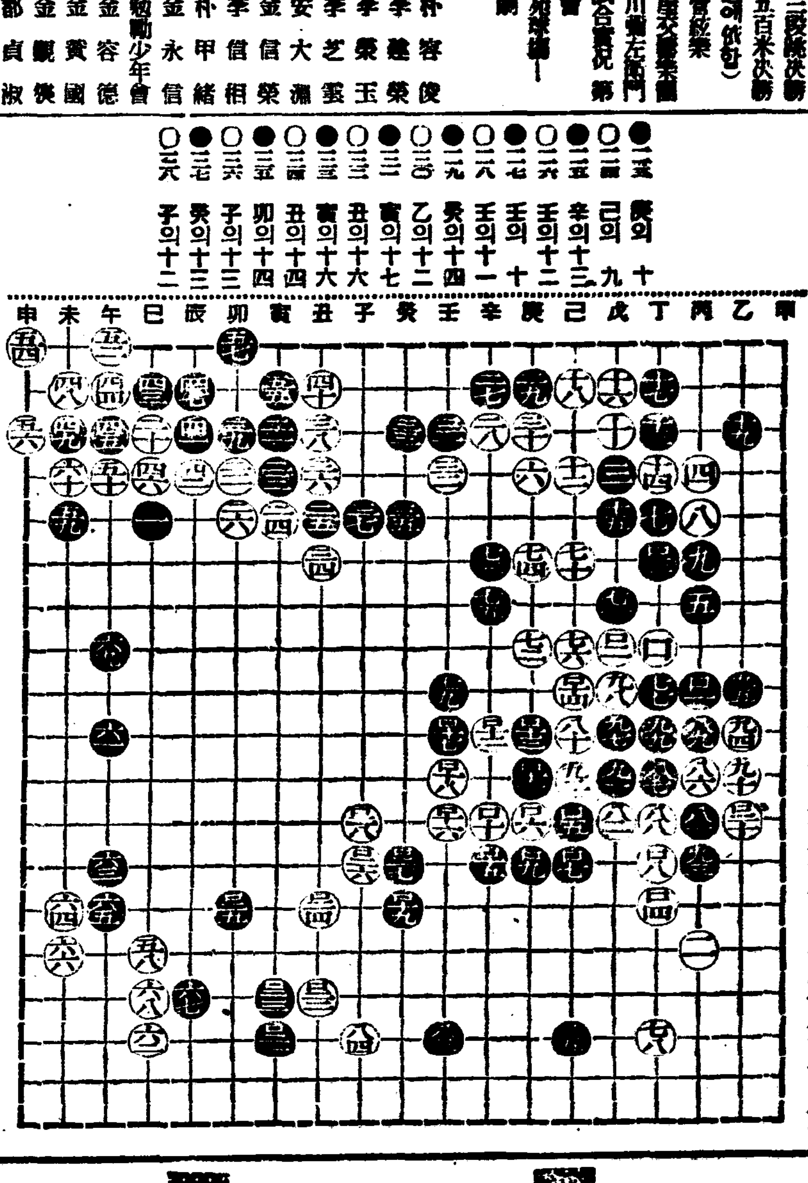


圍碁對局譜 =8=

本社主催

白 權業部 黑先 丁奎春

●二五 庚의十
○二六 己의九
●二七 辛의十三
○二八 壬의十二
●二九 壬의十
○三〇 壬의十一
●三一 癸의十四
○三二 乙의十二
●三三 寅의十七
○三四 丑의十六
●三五 寅의十六
○三六 丑의十四
●三七 卯의十四
○三八 子의十三
●三九 癸의十三
○四〇 子의十二



蔡極文氏評曰 黑은 寅의十七十六 白은 丑의十六十四 猗角之勢로 危險性을 釀成하니 前途奇觀을 又是新來할가하노라

絢爛한 天分의 爭霸戰

第2回 全朝鮮音樂懸賞競演會

開催期日 九月下旬 申請期日 九月五日까지

曲目 二曲을 演奏하되 一曲은 本社指定曲을 取하고 一曲은 隨意로함

【聲樂】 一、蓮花(女)「슈-만」 一、님은 나의安息(男)「슈벨트」

【피아노】 一、「쏘나타」(F長調)=第一樂章=「모짤트」

【바이올린】 一、「콘첼토」(G長調)=第一樂章=「비오티」

參加資格 朝鮮男女로하되 聲樂은 滿十五歲以上

申請規定 申請金 貳圓과 伴奏料 壹圓을 申請書와함께 本社庶務部로 提出하되 樂譜는 實費로 提供함 (但 한번 申請한뒤에는 一切 申請金을 返還치아니함)

表彰 入賞된분에게는 本社로부터 콩쿨賞金을 授與함

審査委員 金永煥、洪蘭坡、朴慶浩、桂貞植、蔡東鮮、金元福、鄭勳謨 (無順)

主催 朝鮮日報社

疲れた時 飲め！元氣が出る

赤玉ポートワイン一本でカラクジなし・総當り！

●各等ともお好みの一品呈上

今！大景品附賣出し中！

一等 (一千口)
姿見鏡台……一台宛
座敷用机……一台宛
八端座蒲團五帖組……一組宛
純毛二枚續毛布……一枚宛

二等 (二千口)
家庭用自働秤……一台宛
洋食器 (ナイフ・スプーン・フォーク) ……三客分宛
家庭用救急箱 (各種藥品含む) ……一箱宛

三等 (五千口)
デッキチェア……一脚宛
家庭用大工道具 (六品入セット) ……一組宛
ハイキングセット (三品入) ……一組宛

四等 (一万五千口)
電氣アイロン……一個宛
割烹着……一着宛
番茶器……一揃宛

應募者全部에 味の素 (特小瓶一個宛) 贈呈

●應募方法 赤玉포-도와인의包紙의레텔 一枚와 口金鍮 (마개가아니고마개를 덥흔鍮製의것)의上部一個와를 全部레텔속에、住所姓名을記하야 左記에보내시라抽籤券과 아지노모도와를 送付합니다・郵送은封筒으로서四錢마다 三錢切手貼付할事・本賣出區域 日本全土(但臺灣을除함)・應募期間今年八月末日까지

送處 大阪市東區住吉町 壽屋サービス係

天然甘味 強力滋精 ぶどう酒

赤玉ポートワイン

뽀-도와인

未曾有의鰮凶으로 製造業者破産續出
生産高는前年同期의四分一
咸南漁業에致命傷

【咸興】 [illegible] 장중요한 자원을 장악하고잇는정어리(鰮魚)는 의연한흉어로 잡히지안허 관계산마여어민들의 극도의공황을 이르키고잇는데 이에 따라 온유(鰮油)온박(鰮粕)도 전년의 절반도되지못할뿐아니라 원료인 정어리가 전부잡히지안흠으로 록백여 공장은모다 전휴(全休)상태에 빠저버렷다

금년도 함남도내의 온박온유의 생산고를보면

鰮粕 九、三○○瓲

鰮油 三八、○二三瓲

으로 그가격은 불과이십만원파게안되는데 생산량이 적으니만큼 온박(鰮粕)온유가격이 모다 전년동기에 비하야 약배나폭등하얏스나 원체생산량이 적음으로 그생산고는 작년동기의 팔십여만원에 비하야 사분의일도 못된다

편옥이 금년은 작년의대풍에비추어서 공장(工場)수도 전년보담도 근백이나늘엇는데 이가려 생산공황을이루어 대개가 파산상태에 이르고 잇다고하며 함남도내에 막대한 경제적영향을주고잇다고한다

沿岸漁民의八○% 飢餓線上에彷徨
咸南의重大社會問題

【三湖】 부조선협래의 어촌은 어획부진으로인하야 곤경에 빠젓다함은 이미보도한바어니와 이제는 상반기(上半期)의 온어(정어리)작업도 종막을 고하게되엿는바 미증유의 흉어관계로서 함남연안의 어민들은 팔십퍼센트나 기근에빠저잇다는데 실로 곤사회문제를 이루엇다한다

群山商業校設置
期成會를組織活動 寄附金募集에邁進

【群山】 군산에잇서서 삼만부민의숙원으로되야잇는 군산갑종상업학교(群山甲種商業學校)설치문제에잇서서는 오래전부터 그실현에매진하야 오던바 경국문제는 부지매수와 교사건축에요하는 경비문제라하야 지난삼일오후이시부터 군산부청루상에서군산부의(群山府議)급 군산상의원(群山商議員)과 기타유지백여명이집합하야 전긔문제에 대하야 협의한결과 동교설립에대한 긔성회(期成會)를 조직한후 동교설립에잇서서는 최소한도의경비가 십마원을요함으로 동금액에대한 긔부금을 모집하기로한후 동오시반에 폐회하엿다는바 당일피선된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會長花開鎭 ▲副會長德口虎王 文義錫 赤松寒奉

明川花臺橋工事 不日開起工

【明川】 명천화대시(明川花臺市)와 성진(城津)사이에잇는 화대천(花臺川)은 수만흔 통행인에게 막대한불편을 주어서 이를 유감으로 생각하는 명천군 하가면(明川郡下加面)당국으로서는 교량가설에 노력하야 함북도당국에도 수차진정한바가 잇서 일

寫眞…(上) 宣川蹴球大會出戰選手一同 (下) 中和邑面對抗蹴球入場式

海城縣에大水害 六十町步全滅

【營口】 지난이십팔일밤 십일시경에 해성현제륙구상구자(海城縣第六區上口子)의 륙십여정보(六十餘町步)가 침수되여 전멸되엿다는데 원인은 제방(堤防)까지 약하여 요하상류에 증수된까닭으로 피해를당하엿다하며 소유자는 조덕주(趙德珠)외 세사람의 소유라고한다

감자凶作未免 長霖繼續으로

【元山】 오래동안 지리한 한발에포위되여잇든 원산부근은 약이주일전부터 흉우가 계속하야 지금도 계속하고잇는데 이로말미암아 세농민의유일한 내동식량인 감자(馬鈴薯)는 썩어가고잇서서 농민의불안은날로더하고잇다 어떤아니라 이번장마로 전답에심어잇는 농작물은 배동에의 침범을당할 우려가만흠으로 자칫하면 흉수가되어 전답을 유린하지나안흘가 자못우려중에잇다한다

鎭興公立普校 學級增設期成會
當日自進喜捨二千圓

【鎭興】 함남진흥공보에서는 학급증설을 계획한다함은 긔보한바어니와 지난사십일에동교강당에서 학급증설긔성회를개최하고 경비일만이천원조달 방법을 토의한결과 해경비조달에 대하야는 특별긔부와 아동중학구역 리민에게 호세등급에의하야 거출하기로 결정되엿다는바 대회당일에 영흥학교평의원 김정무(金貞武)씨를 비롯하야 이천여원의 자진긔부가 잇섯다하며 당일에 선출된긔성위원은 다음과갓다한다

自進寄附者▲五百圓金貞武 五百圓金衛相 三百圓朴齊憲 二百圓金斗元 百圓車陽元 百圓張寬厚 七十圓朱雲瑞 五十圓朴東健 五十圓金承烈 參十圓鄭守一 二十圓崔相圭 二十圓金宗室

◇期成委員▲會長金貞武 副會長金衛相 會計尹承鄒 李圓一 書記陳明仁 崔炳禹

◇評議員 鄭守一 金尙祐 朴齊憲 李正淑 鄭永礎 金良允 鄭翊相 車容相 尹榮琳 趙興麟相 黃光福 朱載斗 朱官述元 金貞勳 金宗室 高利國 金張寬厚 尹大憲 金基洛 趙金允 朴在範 金明昊 李英俊

西鮮一邑面 對抗蹴球大會
大盛況裡終幕

【中和】 지난일일중화체육회주최와본보지국 후원하에 계상회서 [illegible]

鎭南浦의强盜 東街西突하는
四日曉三和町에또出現

【鎭南浦】 지난사일새벽 진남포부청압고(府廳庫)를 파괴하고 현금삼백원을 훔치가지고 도망한 되여 아직범인을 체포하지못하고 경찰은 총동원하는 지난사일오전세시이십분경 도부시강도는 진남포부삼화정(三和町)에서 [illegible] 주인의침입하고 현금이십사원을 강탈도주하야 버렷다 진남포 경찰서에서는 기속범을 수사하엿스나 역시범인의 인상도 알수업시 오리무중으로 사라저버렷스므로 가슴을조리고잇다고한다

羅津港慘水害後報
被收容七二二名中 要救濟三三八名
邑議員會열고救濟案討議

【羅津】 라진읍당국에서는 금번수재피해에대하야 읍장으로부터 긴급읍의원회를 소집하얏더라 당일오후오시부터 읍의원회를열고 지방유지수십여명방청하에 피해에대한 대책을토의하엿다 제일먼저 의장으로부터 금번홍수의사변으로 시민에 막대한손해가잇서서 읍당국에서도 당일이부를 출석시켜 배수구를 정리하엿스며 이재민에 대하야 식료품과 피복등을공급하며 거처할곳이업는 사람에게 움집(小屋)을준비하야 수용할계획등에대하야 말이잇슨후 각의원으로부터 금번수해는전계가 도개공사관계로 인정하는바 례변의 수해를 보드라도 금년도에는 공사관계로 비만 만히오면 년전수해의 배이상의 피해가잇슬줄은 당국자도알것이며 따라서시내일반시민으로부터 전일에 진정까지잇슴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방관하야 일반시민의 참해를당케함은 당국책임자로서 너무나무성의함이니 서급히 당국으로부터 일반의 비난이 업도록 처치하야 명확한답이엿서다 의장으로부터 여러가지를 신중히 고려하야 조처하겟다는답이 잇슨후 다시 수재상황보고가잇섯스며 각구와 읍당국이 합력하야 인부백명을 각처부업자로부터 내여가지고 괴저된 도로와 교량의 계수공사에 수착하게것다고하얏스며 금후 이재민에대한 처처계획안을말한바 다음과갓다

羅津罹災民收容者 七二二名

內要救濟者 三三八名

其他는 親戚에依賴及移轉

罹災民에對한要經費

總額一千百五十圓

內食糧米及燃料代其他代金

合計七百五十圓

罹災民收容小屋六○戶

建築費六十圓

罹災民臨時收容豫定三日間

每日收容者 三三八名

三日間合計 一一○○名可量

三日間要食糧米 五百七斗

이상과가티 계획안을통과시키고 오후륙시무사히 산회하얏다

◇…西湖津大火現場光景

少女一名慘死
모처장에引火

【安邊】 [illegible]

鑛夫一名死亡
火藥의爆發로

【鎭興】 함남영흥군진평면 룡천리(龍坪面龍川里)에잇는 조봉식(趙鳳植)(三五)은 끈궁한 살림에 생활하기위하야 동면 영하리(永河里)한일금산(咸一金山)광부로 종사하든중 지난칠월삼십일밤에 전과가티 작업차로 광구에 들어갓다가 때맛침 채 폭발하지안엇든 화약이 폭파하야 중상을입고 즉시원산도립병원에 입원가료중이엿스나 중상임으로 맛참내 절명하엿다고한다

平壤의瓦斯事業 今月內로許可?
工事着手는明年八月부터

【平壤】 평양의 와사사업은 출원재출이래 사개년을 경과햇스나 아직 인가가 되지안허 서전당국에서는 고대하고잇는중 체신국에서도 어느때까지나 그대로 방임할수업다하여 금월말이나 래월초에 인가를 할의사를 가지고잇다。

인가지령이 나리는대로 서경에서는 명춘부터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한다

東海岸에暴風雨 出漁中의漁船遭難

【大邱】 모처에 들한 정보에의하면 동해안(東海岸)에서는 폭풍우(暴風雨)가 이러나출어(出漁)중의 발동선(發動船)이 표류되여 방금 대소동중이라한다 포항(浦項)의 김동덕(金東德)상점의 소유의 발동선이 작삼일밤 열한시쯤되여 대포(大浦)압바다와 륙마일되는 해상에서 출어중 발동선 한척을 발견하고 곳모항서에 알리여 왓스므로곳 동원하야 수사에착수 하엿스나 폭풍우로 말미아마 수사는 전연히 절망이라는데 조사한결과 강원도(江原道)방면에서 구룡포(九龍浦)를 근거로써 출어중에잇는 복성환(福盛丸)으로 판명되엿다는데 어부로선에는승조원이 사오명이라한다

灼熱의鏡城邑內에 滋暑話題의한토막
富豪家차저왓다拘留만當해
商業資金의調達을要求코자

【鏡城】 상업자금을 구하가 최창학(崔昌學)씨에게 요구하라고 불원천리하고 먼곳에서 차저왓다가 그만미연에 구류처분을당하고말은 사람이잇다

수일전 귀성읍 남문통(南門通)에서 방황하고잇는 한괴한이 잇섯스니 그는 곳경찰의눈에 걸려 엄중히취조한결과 의외의범행사실을자백하고마럿다 곳은 함경남도 북청군 과자상 라선진(羅先鎭)(三六)이란자로서 과자상자금 구해원을 최창학씨에게 조달을요구키위하야 일부러 먼곳에서 불원천리하고 차저왓다는 것이다 곳귀성서에서는 구류십오일에처하고 신원조사를 하는동시 여죄유무를 엄중취조중이라는바 초열의 귀성읍에는 적지안흔 화제가 되여잇다한다

半朔餘長霖不拘 水飢饉依然未去
時急한元山府上水道擴張問題
官民協力大活動開始

【元山】 원산부는 장마가계속하고잇는 원산이건만 원산의수도는 의연히매일여섯시간의 급수박게안하고잇다 어것은 원산부의 상수도설비가 빈약한관계로 급수능력이적어서 수원지의 저수량은풍부하되 엇지할수업시근반년이나 제한급수를 계속하고잇는것으로 어느때에나 해제할지 아지못할 운명에처하야 잇는데 이에원산부에서는 전전달부회에서 오십오만원의 예산으로 원산부의수도를 근본적으로 확장하기로 결의하고 국고급도의보조를 엇고저신청서를 제출하얏다함은 당시에보도 하얏거니와 이수도문제에관하야 원산부윤은 불일상경하야 총독부당국과 절충하려하며 딸아서진정차로 김경준(金景俊)남백우(南百佑)림호영(林虎英)삼야(杉野)신궁(神宮)소림(小林)등 제씨중에서 세사람이 곳상경하야총독부당국을 방문하리라는데 오래동안 음료수긔근에 포위되여잇는 원산시민은 그진정결과를 매우주목하고잇다고한다

말성의元山上水道
使用量減少不拘 料金은比前多額
斷水時들어간空氣로因하야 "메돌"이더도라간關係

【元山】 원산부는 작마부민의 음료수를공급하는 원산부의수도는 오래전부터 제한급수를 하고잇다함은 루보하엿거니와 이제한급수로말미암아 수도수는전보다적게서용함에를고하고 메돌은전에배가되야, 료금을더지불하게됨으로 수도사용자들의 불평이놉하간다고한다

이에대하야 부수도개의 말을들으면 단수로말미암아 절구(蛇口)로부터 공긔가들어가 급수할때에 그공긔가물과함께 나오기때문에 메돌이 메돌아가서 료금이 만허지는사실이 잇게되는데 이공긔의작란으로 메돌이놉하저서 료금이전보다 만허진다면 종전에대조하야 가감하여밧게되다고하며 결국수도료 요수부상에는 가감이업다고한다

地方人事

◇張命昌、裴榮葉兩氏 本社主催白頭山探險隊員에 當選되야 探險準備次去四日午前八時起安縣發車로 向京城

▲光陽蹴球團一行 今月五、六兩日間光州에서開催되는 全朝鮮蹴球大會에出征人事次 團長黃秀銀氏引率로本社光陽支局來訪

昔時馬韓의王都 益山古蹟의巡禮(完)

裡里支局 一記者

▲雉泉과浮石…나는 王陵所在地를 차저가는 途中 村人에게 西便으로 約十餘町만드러가면 益山에 有名한浮石이잇다는 말을듯고 好奇心에끌리어 다시雉泉을 끌고 그리로向하엿다 가는中間에 또 雉泉이잇다는 말을듯고 雉泉잇는곳도가라고 하엿스나 時計를꺼내보니, 벌서午後四時를 가르키고잇는지라 도라올길이 저믈것을 念慮한 나는 그곳까지 가지를 못하고 다만傳說만을 못기로하엿다 雉泉에 一羽의 꿩(雉)이 傷한다리를 이우물속에 잠그고잇는것을 보고 사람들이 試驗하여본結果 皮膚病患者에게 가장 有効하엿기때문에 其後부터 이우물의 일홈을 雉泉이라고불럿스며 皮膚病患者는 서로다투워가며 이우물로 조차가서 씻기만하면 効力을어더나엇다는데 至今은 그대지新奇치가못하다고한다 그다음 浮石所在地를 차저가니 이亦是 龍華山南麓新龍里라는 村附近에잇다 一個의 石우에 또一巨大한바위(岩)가載在하여잇는데 명주실(絹絲)로써 그새이에너허잡아다리면通하여나오다는것으로 距今十二月下旬夜에는 隣石傍에서 炎火를하면天雷과 함께 空中으로 浮上한다고하는데 其是一奇觀이엿다 나는 도다시 王陵을차저가기로하고 거름을재촉하엿다

▲王陵又는雙陵 나는 入峰山近處까지와서 논에서 일을하고잇는 어느村老人에게 王陵에對한 이야기를 듯게되엿섯다 雙陵은 五金山五金寺附近에잇는데 後朝鮮武康王과그의妃의 陵所라고한다 (俗稱末通大王陵이라고도한다)그런데 이陵에는 多量의 黃金이 埋藏되여잇다는傳說로 因하야 舊日에는 盜掘을 當하엿다는말도 잇다고한다 나는 이말을듯고 五金山에갓슬때 이王陵을 차저보지못한것을 몹시섭섭하게 생각하엿스나 至今은 無可奈何로다 할수업시 老人을 作別하고 도라섯나는 入峰里雙陵이나차저보기로하엿다

▲雙陵…이雙陵은 入峰面新旺里에잇는데 (元來는新王里엿는데 近來에旺字로 곳첫다고한다)丘陵上南北에 相對하야 北便에 잇는 墓를 가르처말하되 大王墓라하며 南便墓를 小王墓라고 稱한다 封土는 만히 流下되엿고 石扉은 花崗石으로 玄室內에는 木棺이 太半腐朽되여 잇다는데 百濟時代의 王陵이라고 한다 此陵亦是 昔時에 盜掘을 當하야 副葬品은 無하다하며 小王墓 亦是盜掘의 痕跡이잇섯다

말을들으면 大正五年에總督府當局에서 이雙陵을 發掘한結果 多少의 遺物이나오게되야 至今 京城博物館에 保存되여잇다고한다(直接보고오지못함을말하여둔다)그러고 멧해前에 某墓守가 盜掘을 當하다가 石에 未達하야 그대로中止하고 말엇다고한다 茂盛한 松群만이 四面에 서잇스며 松林속으로 불러오는 벌국새소리는 나에게 異常한 感情을주엇다 靜寂는 年年歲이로래 王陵을 國不顧하는 이를두고 일함인지! 人生의 虛無함을새삼스럽히느기면서 나는다시 발길을돌려益山의 怪物인

▲筍松과三栗…을 찾기로하엿다 益山에 三怪物이란 前記浮石과 筍松과三栗을가르처三怪物이라고하는데 筍松은 新旺里附近에잇섯스나 至今은 痕跡조차볼수가업스며 傳說만을듯는다면 솔나무를 베이면筍이곳다시자라낫섯다하며 三栗은 一年에 세번開花結實을한다는데 此亦 王墓里附近에잇스며 至今도 松林間에 살어잇다고한다! 이것으로써 오래동안 宿題가되여 잇든 益山古蹟巡禮도긋을마치고 나서나는무거운 짐이나버슨것가티 엇던지 시원한생각이들엇다 집을도라와보니 時計는 午後八時半 저녁을마친다음그대로누워 이날의疲困에곤다리를쉬엿섯다。

◇……雙陵全景

車輦館

第七回平北個人庭球大會

▲時日 八月二日午前十一時半

▲場所 車輦館幼稚園 코ー트

◇主催 車輦館體育會

◇後援 朝鮮日報車輦館支局

江界

第三回西北蹴球庭球大會

▲時日 八月十四、十五兩日間

▲場所 江界英實學校球場

◇主催 石州體育會

◇後援 朝鮮日報社江界支局

愛慾의彼岸 【69】

李光洙 作 金康穆 畵

원산 바다에 온 혜련은 날마다 조금씩 유쾌한 긔분을 회복할수가 잇섯다。비도 개이고 사람도 만히 모혀서 해수욕장은 대단히 흥성흥성하엿다。아침 저녁 따라서 저빗으로 쪽빗으로 고동색으로 야청으로 빗갈을 변하는 바다라든지 바다저쪽으로 보이는 적은 푸른섬이며 흰 구름시봉오리라 든지 황혼에 먼산에 떠런 구룡에서 번쩍거리는 번개라든지 이런것이 다혜련의 울울한 긔분을전환하기에 효과가 잇섯다。

처음에는 술빗과 모래판에 날뛰는, 또는 두편누운 벌거버슨 남녀들이 추해보이고 징글징글해보여서 보기도 실럿것이 차차 그속에서 일종의 조화와 힘과 아름다움과 깃붐도 찻게되엇다。

「몸뚱과 울뚝이 갓득 찬 고기덩어리。섞어서구린내날고깃냄어리。당장도 흐과 살이모도 써어서 코를 들수업시 더러운 냄새를 피우는 시체의 무리」

이러케 생각하던 혜련도 차차 건장한젊은 남성의 몸의、그의 몸과 얼굴에 나타나는 성적인 아피일에 흥미를 가지게까지되엇다。

혜련도 수영복을 입고 바다에 들어가서 문힘과 가티 놀앗다。늙은 김장로까지도 손자를 끌고 안고 나이를 이저버린드시 물에서 모래판에서 깃버하엿다。

입맛이 나서 밥을 잘 먹는 딸을보고도 김장로는 아버지로의 깃붐을 깨달앗고 문힘의 잘 발육된 라체에서는 애인으로의 도취를 느꼇다。

「문힘이는 참 몸이 조코나」

하고 수영복을 입고 선 문힘을 보고 김장로는 그 가는스름한 눈에 웃음을 띄우면서 말할 때에、

「아이、아저씨 보시지마세요」

하고 몸을 빗꼬고 돌아서리만큼 문힘도 김장로와 친숙하게 되엇다。

어느날、문힘이가 목욕을 가고 혜련이만 혼자 잇슬 때에 김장로는 눈을감고 한참이나무엇을 피곤게 생각하는듯하더니 문득 눈을 뜨며、

「혜련아」

하고 불럿다。

「네?」

하고 혜련은 그리엇서로 옷루들에게 펀지쓰든 손을 멈추고 소라 오는 편을돌아보앗다

「나 네게 좀 물어볼 말이잇서?」

하고 김장로는 정답게 말하엿다。

「아부지 무슨 말슴이서요?」

「응 좀 허기 어려운 말이다 그러치만 네게는 아니할수가업거든。」

하고 잠깐 혜련의 눈치를 보다가

「너 문힘이를 어떠케 생각하니?」

하고 벌써 정찬은 얼을 붉힌다。

「어떠케라니요?」

하고 혜련은 작한 낫을 찌긴다。

「아니 문힘을 어떤 사람으로 아느냐 말이다。인물이 어떠하냐 말이야。」

「조흔 애조。」

「글세 내 보기에도 그러케 갓태。사람이 괜찮은것 갓혀。그럼 너 보기에도 그런가 보냐。」

「그런데、아버지 배련가에 그런 말슴은 왜 물으세요?」

하고 혜련은 우수움과 무서움을 동시에 느끼면서 아버지를 돌어지게 보앗다。

「아니 글세、말야」

하고 김장로는 다시 웃음의에 드러누어서 조는드시 눈을 감는다。

「이상도 하다」

하면서 혜련은 쓰든 편지를 다시 쓰기 시작하엿다。

얼마 잇다가 또 김장로가、

「혜련아」

하고 불럿다。

「네?」

하고 혜련은 붓을 든채로 안젓다。

「내가 문힘이허구 혼인을 하면 어떠켓니? 아버지도 혼자 살수는 업고 개취를 해야할텐데、혼인하자는데는 만치만는나는 문힘이가 마음에 드는다말이다」

하는 김장로의 말에 혜련의 손에들엇든 붓은 떨어지고 그 입은 버려졋다。혜련은 놀란것이다。

米棉의需給狀態

數末持越二百俵減

米棉의需給狀態는 七月末로써 끝나고 八月一日로부터 새로운年度에 드러왓다 그래서 이것을 基礎로 米棉의需給狀態를 보면 다음과갓다。

×

米棉의需給狀態는 別表와如히 昨年의米棉生産高는 一千餘萬俵이엇고 消費高는 約千三百萬俵로 推定되고 七月末의持越高는 約三百萬俵의豫想이다

◇供給高 (以下單位千俵)

	一九三五—六年	一九三四—五年
持越高	七、一三七	七、六四七
生産高	一〇、四二〇	九、四六七
계(씨되·크림)	二一〇	六二
計	一七、七六七	一七、一七六

◇需給高

消費高	五、五一九	四、一七四
輸出高	五、〇七六	四、四八三
消費高	七〇〇	五九三
輸出高	九六五	七七五八
滅耗高	二〇	二〇
計	一二、二八九	一〇、〇三六
年度末持越高	五、三八八	七、一三七

×

即 今年七月末의 米國 國內持越高로 約五百四十萬俵豫想으로 其中 約三百萬俵는 政府의所有이다。(米國政府는 今年까지 約四百五十萬俵에達하는 擔保棉과 百萬俵에 達하는 現物棉을 가지고잇는데 政府棉은 再次라도 依하야 生産棉도 市場賣作에 依하야 消費高는 依하야 三十萬俵를 減少하야라고 하엿다)

×

그래서 古棉의 需給狀態는 極히 適當하다 何如間 一九三五—三六年度의 米棉消費高는 六百五十萬俵乃至 七百萬俵로 豫想되는데 이것은 一九二八—二九年度以來의 最高이다 此等 國別로보면 日本이 依然 最大의需要國이다。

◇輸出高 (以下單位千俵)

		比前年同期
日本	一、四六三	五減
英國	一、二六四九	大四一增
獨逸	七四〇	四二一增
佛蘭	六六八	三二五增
其他	一、五六一	一一〇減
合計	五、七八一	一、二六減

×

世界의米棉需給狀態는 어떠한가 紐育棉花取引所調査部의調査에 依하면 今年五月末까지 十月期間의 世界消費高는 一千四百六萬六千俵 (前年同期九百四十五萬六千俵)로 이대로 가면 全消費期의 消費高는 아마 千

米棉世界需給 (以下單位千俵)

年度	年度初持越	生産高	消費高	年度末持越
一九二九—三〇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〇—三一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一—三二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二—三三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三—三四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四—三五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五—三六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一九三六—三七年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百五十萬俵에는 達할모양이다 이에 對하야 昨年의 生産高는 씨되·크림을 加算하야 千五百萬俵가량이엇스므로 今年七月末의 持越高는 約三百萬俵가량이줄어 七百萬俵가량으로될 모양이다 今年度의 米棉生産高에 對한 政府의 發表는 八月上旬이 아니면 發表치 못할것으로 豫想되나 만일 그러케되면 新年度에도 在荷는 다시 百萬俵以上의 減少를 보게될것이라고한다

國際重要商品

一齊昂騰顯著

其中小麥暴騰이第一位

各國財界의好調로

七月末現在

重要商品의 相場은 英米財界를 비롯하야 各國의 好調로 國際的으로 繼續하야 昂騰步調를 보인다(一九二三年平均一〇〇)

	七月末	前月	前年同期
棉花	一〇〇	九六	九五
生絲	四〇	三五	九六
小麥	一三三	九六	九五
砂糖	七八	八一	六九
고무	二〇	二〇	一五
銅	六二	六一	四九

砂糖 고무以外는 一齊히 昂騰하고그中小麥의暴騰이 가장 顯著한것은 世界過剩小麥在荷가過去九年以來 初有의 少量이며도 는 産地의早魃로 더욱需給好轉을 期待케되엇기때문이다 다음에棉花도 古棉의供給逼迫과 新棉의作況念慮가 만코 生絲는 米國의 秋期景氣豫想으로 好調를 呈하며 一般農産物도 良好하다。그러고 鑛物은 鉛, 亞鉛이 低迷狀態를 못버서나지만 銅, 鉛等의 强調로 大勢는 好調를 보인다 主要國財界에 對하야 一層 好望視하므로 國際商品도 그傾向이 繼續케될것이라고 한다

朝鮮內經濟政策

總督의更迭로因하야

◇……變化? 踏襲?

宇垣總督이 가고南新總督이오게되엇다 이를따라서 宇垣前總督의 朝鮮經濟界에 對한政策을 南新總督의 손으로 얼마만한變化를 보게될가 或은 그대로 踏襲케되고 말가 이에 對한 朝鮮經濟界의 一部所見을 드러보면 다음과갓다。

結局踏襲

繼續의産業開發

南總督과宇垣前總督은 일즉부터 肝膽相照의 터로 宇垣總督이 取한 經濟政策을 그대로 踏襲할것으로 볼수잇다 그러므로 總督府의 朝鮮經濟界에 對한政策方針에 急激한變化가 잇슬것으론 밋지안는다

◇

朝鮮産業開發의 看板을繼續하야 내여걸이라 더구나新總督이 滿洲事情에 精通한關係上移民, 또는 貿易方面에 어느程度까지 積極的方針을 세우게되지안흘가 그러고 最近에 新機運으로 具體化한 所謂工業轉換政策은 宇垣前總督의 日本內地工業資本의 誘致方針을 그대로 踏襲케될것갓다고

尙未知數

變化難免의豫想

後任總督으로 누가 되든지 國際的現實에잇서서 宇垣前總督의

一、朝鮮産業資源의 一大開發
一、朝鮮의 農家更生計畫

의 二大政策는 客觀的情勢로 보아 不動할것이다

◇

그러나 一面으로 朝鮮內産業開發上의 隘路的問題로 日本內地, 朝鮮産業의 對立에對하야는 宇垣前總督은 朝鮮의 獨自性을 主張하고 新興産業의 指導保護를 提唱하야 新總督는 이에對한 見解가 아즉 未知數이므로 밧듯이그대로 踏襲할것으로 보기가 어렵다고

小野田의能力

極度로制限된다

小野田洋灰統制는 今冬十一月부터 實施되는데 그結果朝鮮小野田社는 朝鮮內需要量六十八萬廸으로 推定하는境遇에 朝鮮에잇서서는 四十八萬廸、日本內地에 잇서서는 十萬廸 合計五十八萬廸으로 販賣能力을 制限하기로되엿습으로 今後의 交涉에넘어잇는 滿洲輸出이 多少設計되다하야도 來秋에는 海州의朝鮮洋灰(能力十六萬廸)가 操業을開始하는結果 朝鮮小野田社의 朝鮮內販賣配當量은 朝鮮洋灰에 影響을밧게될것으로 結局 朝鮮小野田의 販賣能力은 年間五十八萬乃至六十萬廸으로局限되게되어同社의能力九十萬廸에서 三十萬廸即三割三四分의 操短을 하지 안흘수업게되엿다 그래고 目下同社는 自發的으로 二割平均의操短을 行하고잇다

工場擴張

朝鮮小野田 川內里工場의 擴張工事는 完了되야 目下 試驗操業中인데 月末에 火入式을 擧行하며 九月初에 製品을 市場에販賣하기로 되엿는바 擴張된 能力은 年間十二萬廸으로 그結果 川內里工場能力은 四十二萬廸이되야 同社의全能力은 年間 九十萬廸이된다

下旬鐵道荷動

鐵道局의 七月下旬의 貨物荷動狀況은 降雨期임을 不拘하고 好調를示하다

株式取引現物部

支店出張所를嚴調

朝鮮取引所證券取引店은 現在二十四店의 多數에達한바 店數過多로 競爭이甚하고 顧客爭奪에 狂奔한남어지 愚昧한地方人士의 投機心을 刺戟키爲하야 株式取引에 서투른사람에게 株式投資를勸하는 弊害가잇다하야 總督府當局에서는 現物部의支店、出張所等의 設置를 嚴重히取締코저 內査中이라한다

秋山朝取常務談

取引員으로서는 如何한形式으로던지 支店出張所를設置할수 업는것은 周知의일로 그런일이 업슬것으로밋는다 萬一 이것이 事實이라면 重大問題로 取引所로서는 看過할수업다 云云

日滿實業協會

朝鮮支部提案內容

日滿實業協會朝鮮 支部에서는四日 理事會를開한結果 九月十五十六의 兩日間新京에서 開催될 日滿實業協會定時總會에 左記提案을 하기로되엇다

一、朝鮮內國境地에 滿洲帝國政府官憲公設駐在를 要望할事
一、滿洲國의 開拓에 從事하는 日本內地人朝鮮人의 移民事業에 關하야 그 指導統制를 適宜하고 各機關의 聯絡統制를 强調키를 要望할事

操出實同事項는如左하다

人造棉研究時代

國策上見地로 「스테풀파이바」今後의發展은 相當히期待되는것이잇는데 다만 今日의生産計畫을보면 需要方面을가지못할뿐하다 넘우지나치게先走하고 期現狀으로서는 아즉 製品이나오자안엇음에 不拘코 生産計畫은 年內約二百噸 來年度三百五十噸이라는超大計畫가잇섯다。

重要商品界事情

◇

元來「스테풀파이바」가 實用化된것은 歐洲大戰當時로서 面재獨逸서使用하고 其後約十年을지나서 日本에도 輸入되오던歷史를가지고잇다。그當時부터 同品은 有望하다고 讀者가보고잇음에 不拘코 人絹에比하야 그發達이遲遲하얏던것은 選擇할相當한理由가 잇섯다。그것은 品質改善이 보다困難한點이잇다。

◇

「스테풀파이바」의 前途는 觀察치안코 多事多難하야 需要者側도 不斷의研究와努力이必要하며 特히 需要者側에서相常 生産者側을 리―드하는立場에잇서야할것이다。

人絹이 生絲代用으로서생긴것이라면 「스테풀파이바」는綿絲, 羊毛等 廣範圍의 絹絲必需品의 代用品으로서 前途는洋洋하리로 或은 人絹의比가아닐지도 모른다는바 아즉은當分研究時代라 볼수잇을할것갓다는點이잇다

四日米局鐵發送高

	今年	前年	比較
釜山	三三瓩	10三瓩	一三瓩增
大田	三三 〃	三四 〃	三三 〃
京城	三五四 〃	三光 〃	三五 〃
平壤	三 〃	三光 〃	三三〃減
元山	三 〃	三 〃	五 〃
城津	三 〃	三 〃	三 〃
合計	八光 〃	八八 〃	九 〃
累計	三光 〃	三光 〃	三三〃減

一、滿洲國의 鐵道運賃의 遠距離遞減制에 關한件
一、滿洲國關稅改訂의 方針과時期의件
一、國境通關事務의 改善에關한件

證券所持不變

七月三十日現在 京城組合銀行의 有價證券所持高는 二億四千三百六十九萬一千圓으로 七月十五日現在에 比하야 二萬圓의 增加 前年同期에比하야 五千百九十四萬九千圓의增加이엇다고

手形交換

全朝鮮의

七月中減少

【京城手形交換所調査】七月中의 朝鮮內 九交換所 手形交換高는 二十五萬六千二枚 一億四千八百九十萬四千九百十二圓으로 前月中에比하야 一萬二千九百四十二枚 一千七百五十二萬一千三百五十二圓의各減少 前年同期에比하야 一萬二千九百七十二枚 一千六百二十一萬一千七百十七圓의增加이다

預金減、貸出增

七月末京城組銀

【京城手形交換所調査】七月三十一日現在 京城組合銀行 預金貸出狀況은 預金一億三千八百五萬五千圓으로 七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二百四十四萬六千圓減少、前年同期에比하야 六百七萬圓의增加이엇다 貸出은 一億六千六百九十二萬九千圓으로 七月十五日現在에比하야 四百五十九萬圓、前年同期에比하야 二千九百七十五萬八千圓의 增加이엇다

米日爲替保勢

【京城四日發同盟】四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 賣二十九弗三十七仙으로保勢 買二十九弗三十四仙으로保勢

▲東京爲替(五日)
對米 賣買 二十九弗十六分五 二十九弗八分三
對英 賣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十六分三

▲大阪爲替(五日)
對米 賣買 二十九弗十六分五 二十九弗十六分七
對英 賣買 一志二片三十二分一 一志二片十六分一

取引停止 (八月五日)

▲鐵物商 京城府黃金町四丁目 六五番地 崔相殷▲京城府貫鐵町四八番地 閔景鎬

○

株式取引店의 支店、出張所를 斷然 嚴罰할 方針이라고

○

株式取引에 서투른 朝鮮에잇서 또는 投機抑壓인 時代相에 비취어 當然한일

○

歐米式으로 奬勵하던 棉作栽培를 中國式長處를 加味 하리라고

○

舶來라고 떠허노코 조홀것이 아닌것을 證左

○

七月의 朝鮮 對 日本內地貿易은 移出減、移入增으로 入超 激增

○

작구 사드리기만 하는모양

商況 [五日]

株式 穩健裡에上進

前場下押

高價買物不續하야 伸惱反弱이엇스니 卽 昨後引에 比하야 東新六十錢低인 百二十四圓六十錢 日産九十錢低인 七十八圓九十錢 鐘新二十錢低인 百五十九圓八十錢 日産新二十五圓八十錢에 各大引되고 大新六十八圓十錢 朝新三十圓九十錢이잇섯다

▲東新 三貫(奇) ...

朝取主要株取組

	朝	新	大	新
	賣	買	賣	買
小林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丸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白井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二田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德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山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立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京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成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古野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金釜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東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亞細亞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第一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明治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丸玉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丸星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新田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內海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實物前場取引

▲朝日麵 ... ▲旭石油 ... ▲旭石新 ... ▲富士木材 ... ▲日滿製粉 ... ▲片倉製絲 ... ▲帝麻新 ... ▲大分세멘트新 ... ▲小野田세멘트 ... ▲後野 ...

東新依然戻賣

後場反騰

前場이 下落되엇든바 今場에는 東新三十圓六十錢, 鐘新百五十九圓八十錢, 日産七十八圓九十錢의 寄付後變化步調를示하엇다 ...

增稅不可恐論

十二年度豫算總額이 얼마나 膨脹될지 增稅와 公債가 如何히 決定될지 豫斷不許이나 明年度豫算은 陸海軍充實과 其他重要國策에 要할 經費增加를 豫想하면 三十億圓을 突破할것으로 그러케될 다면 七億圓의 財源을 如何히 調出할가가 問題인데 內閣調査局案에 依하면 初年度增稅額을 億四千二百五十萬圓으로 보고잇스나 그中에는 實行困難의것이 잇슴으로 明年度부터 三億圓以上의 增稅斷行은 어려운 一方이다 ...

東京國債市場

【東京同盟】一步高調를 保持하고 ...

大阪國債市場

▲甲五分利 一〇一、八〇 ▲四分不申 ...

今日財界 (五日)

◆米 (單位錢)

		比前日
仁川正米	[illegible]	[illegible]
大阪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京取期米先限	[illegible]	[illegible]
正米	[illegible]	[illegible]

◆株 (單位圓)

		比前日
日東新	[illegible]	[illegible]
東新	[illegible]	[illegible]
大阪綿絲	[illegible]	[illegible]
大阪棉花	[illegible]	[illegible]
大阪人絹	[illegible]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illegible]
고무	[illegible]	[illegible]

颱風後에少落

後場續弱

前場보다 十錢低인 二十九圓九十九錢까지잇섯다

期米 軟弱

一般人氣

前場小弱

昨後場阪地三十三圓十二錢止와共히 三十一圓〇

㈱……百二十五圓臺로 戾新價를 보기는 하얏스나 後伸力이엇시 머리가 무거웁다▲臺灣가덜돌의모양 製綿丸개나면 머어야할가▲目前으로는 十日閑離形勢나 바라볼수박게 年度後纂編成業觀人氣가 되어가는모양이나 果然業觀케될가? ▲日産도 八十圓위로는 못가고 近者는 七十八、九圓臺에 新付▲代位云云도 一時的이엇던가? ▲六感字로하야곰 ?字를 작구쓰게하는 場面

㊝……颱風은 黃海道에上陸한後 因而消滅되고 今朝晴天으로 市勢는 微弱▲그러나 阪仁共히 當中兩限은 依然頑强한편이다 此는正米의實勢關係도업지안커니와 堂島市場을 本營으로한 田中氏及瀧先一派의 頑强가主因인모양▲此一派는 當中兩限에對하야 數만아니라 依하야는 先限에도 買出動을 할이라고云云▲그런데 日本內地米의事情으로는 渡米鮮의難을 이엇지아니할수잇스나 그러나鮮米는 持久戰을할수잇으나 朝鮮의在米事情은 틀이허 賣方이 持久戰을하여야할事勢이다

取消賣買盛行

阪地買、朝鮮賣

新甫十月限이發會된後부터 阪地買注文 某某取引店으로부터 當地市勢로서의 人氣는 今後波瀾豫想하야 天候注視의狀態인데 前日을陰하거까지는 兩方共히警戒 不怠하야 大波瀾을일으키지못할것갓다

各地正米

▲賣方＝朝鮮側 汝政、地場强氣
▲買方＝臺灣側、海堀、地場歡派
場主要賣買는 다음과갓다
中東側處分

京城小康

期米無勢이나 實物濟과 當用買자 잇서十錢高이엇는데 ㊂三等三一、一〇 同四等三〇、八〇

仁川少堅

當用側의 値頃買로 市勢가十錢高이엇스나 一般으로 잘안팔리엇는데 ㊂三等三一、一〇 四等三〇、八〇 一等白米一三、四〇

釜山閑散

買氣一巡으로市場總傍觀人氣로 되야 閑散場面이엇고 賣買는겨우 百九十九叺의 沈滯를보혓슴뿐인데 ㊂三等三一、三〇 四等三一、〇〇 一等白米一三、四八

大邱少弱

期米軟弱으로依然 買物이 不振하고 十錢低의 氣配이엇스나 持米側은 不變으

群山下落

內地人注가 賣氣가이엇다 ㊂三等三〇、五〇 一等白米 一三、〇〇

木浦不動

期米保勢로 依然 人氣不振인데 賣惜人氣가 持續하야 市勢가 下落으로 閑散을 못하엿다 ㊂三等三一、五〇 四等三一、三〇 一等白米一三、七〇

朝取期米本玉表

◆賣方 ◆買方

	賣方	買方
當限	[illegible]	[illegible]
中限	[illegible]	[illegible]
先限	[illegible]	[illegible]

堂島前場保勢

【大阪電話】天候良好이나 軟派의突込이업고 도朝鮮이 買戾行하야 比較的底堅이엇스나 一般 新動機待로場面不振이다 그러나 天災市勢로서의 人氣는 今後波瀾豫想하야 天候注視의狀態인데 前日을 ...

已에 越出하야 昨日까지 三萬石에 達하엿다는바 그原因의所在는 滿月末에 納會된 十月限이 後場一日의 三百十七丁이나 增大되바 잇섯고 能하야今月에 入하면서 入限의 阪仁間新甫가 二百七十六丁九限의 開甫가 二百五十九丁으로 此中限도今後 三百丁以上의 增加를 示할光景이잇슴으로 當地有力側은 新甫十限의二百十丁의開始를 繼續하고 當地 商阪地買인 即取納的實買에 熱中하는光景이다 實로 當中兩限의 阪仁의 開納가 漸次擴大될을 보면 復舊大될것을 豫히 알수잇스며 在來米의 事情으로보다할지라도 朝鮮은 比較的潤澤하고 日本內地는 어느市場을 不問하고 二年續凶作의 本色을 如實히 나타내어 渡米難의 困難을 呈하게될으로 阪仁의 鞘가 例年同期보다 顯著히 擴鞘의 모양이다 實化할모양이다

米期
東
趙俊鎬取引店
仁川海岸町三丁目

株 米
仁川 東益堂商店
光皿
東益證券合資會社

金.銀.白金
德
京城德力
金元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電話本局3939 振替京城234
京城府明治町

金融 五日

◆海外經濟 ◆朝鮮銀行券 ◆日本銀行券 ◆東京手形交換 ◆東京金利 ◆大阪金利 ◆對外爲替 ◆金買入價 ◆東京市中金銀價 ◆京城市中金銀價

米穀 五日

◆京城正米 ◆仁川正米大豆 ◆京城雜穀

商品 五日

◆京城綿系布市勢 ◆京城綿布 ◆綿糸 ◆麻油冷價 ◆滿洲商況 ◆大連特産市勢 ◆日本麥粉市勢

株式 五日

◆朝取短期實買高 ◆東京現株 ◆東京短期 ◆朝取短期 ◆大阪短期取組 ◆大阪長期 ◆東京短期取組

期米 五日

◆朝取期米 ◆大邱期米 ◆朝取期米賣買高 ◆群山期米 ◆木浦期米 ◆釜山期米 ◆大阪期米 ◆東京期米 ◆大阪期米取組 ◆日本各地期米 ◆各地正租市勢(單位錢) ◆大阪正米標準價 ◆大阪市中在米高

商品 五日

◆大阪綿系 ◆大阪棉花 ◆各地人絹 ◆大阪人絹現物 ◆橫濱生糸 ◆大阪砂糖 ◆海外砂糖 ◆倫敦金塊 ◆刈카고期米